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4세 무지개반 음악활동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정 소 영

만 4세 무지개반 음악활동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정 소 영

인 준 서

정소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만 4세 무지개반에서의 음악활동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보고 교사가 음악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심층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만 4세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의 실제와 의미는 무엇인가?
- 2) 음악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무지개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24일까지 주 2회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총 12주 동안 24회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교사와의 형식적인 면담은 총 4회 이루어졌으며 일상적 대화를 통한 비형식적인 면담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였다. 참여관찰 후에는 필드노트를 작성하였고 면담내용은 녹음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필드노트와 녹음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의 종류는 노래부르기, 악기

연주, 신체표현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노래부르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지개반 교사는 자기의 표현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기질의 유아들에게 노래 부르기를 통해 활동에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한편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아에게도 노래 부르기를 통해 칭찬을 하며 활동에 동참시켰다. 교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유아의 기질과 행동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유아들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지도하였는데, 노래부르기는 교사의 격려와 관심을 유아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노래 부르기는 언어표현과 낱자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매일 변하는 날씨에 대해 숙지할 수 있었고 변화하는 날씨를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언어 표현으로 확장하였다. 교사는 음악활동을 노래와 언어로 표현하는 통합적 활동으로 유도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매일 같은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 반복되어 지루해 보이지만 유아들에게는 오히려 익숙함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러한 익숙한 음악활동은 유아들에게 자신 있게 동참하는 활동으로 전달되었다. 또한 교사는 노래 부르기는 다른 활동에 비해 교구, 교재가 필요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무난히 할 수 있는 쉬운 음악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다른 음악활동에는 여러 악기나 교구와 활동 자료들이 필요하지만 노래 부르기의 경우에는 교사가 반주 할 수 있는 건반악기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활동 자료의 준비가 수월하고 교사가 반주를 할 수 있으므로 노래 부르기는 다른 음악활동에 비해 어렵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교사의 인식은 다양한 음악활동의 계획과 준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기는 유치원 생활주제의 가장 유용한 전달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가사에 담겨진 생활주제의 함축된 내용이 교사들에게는 음악활동 중 노래부르기를 선택하게 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노래의 제목과 가사가 생활주제와 연관된 곡을 선곡하였는데 이는 생활주제 중심의 통합교육

을 실시하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한편, 악기 탐색을 할 수 있는 무지개반 음악영역은 다른 활동 영역에 비하여 교사의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 영역이었다. 악기설치나 음악자료가 교실 환경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두들겨 보는 것만으로도 소리에 대한 탐색이 되고 음악이 되며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의욕이 창의력으로 나타나는 유아기의 음악적 발달을 위해서 음악환경에 대한 교사의 민감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악기연주를 통해 교사는 유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는 유아기 음악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음악적 성장으로 유아가 악기라는 음악적 도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표현활동은 노랫말에 따른 율동을 유아들이 직접 창작하는 활동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체표현활동을 통한 음악활동은 교사가 계획하고 준비한 신체활동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유아들이 직접 구상해서 만든 신체표현활동은 유아들에게 관찰력이나 상상력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으로 무지개반에서 좋은 음악활동이 되고 있었다.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표현활동은 유아의 리듬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음악의 길고 짧음, 높고 낮음, 빠르고 느림의 차이에 반응하여 가사에 맞게 변화 있는 신체 움직임을 통한 음악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음악활동을 실시하면서 무지개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먼저 음악활동자료와 교구의 부족함이 교사가 음악활동을 실시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교실의 구비된 음악영역 환경의 소홀함은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에 부족하여 교사가 다양한 음악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교실 음악환경의 변화는 유아들의 음악적 관심과 기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음악활동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는 음악활동은 무형이지만 음악의 질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악기나, 노래나 율동 등이 연주자처럼 익숙하게 잘 연주하고 듣기 좋은, 마치 보여 지는 결과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음악활동의 확장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코다이나 달크로즈와 같은 음악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프로그램의 전문성 때문에 교사가 준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인용에 대한 교사의 고민으로 인해 교사가 함께 있는 반 유아들의 음악적 눈높이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활동을 실시할 때 교사의 음악적 자신감 결여가 음악활동에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무지개반 교사는 느린 곡의 진행을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템포에 민감한 유아들이 빠른 곡일수록 노랫소리와 반응이 크게 나타나고 즐거운 음악활동의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고, 느린 곡의 경우 유아들의 반응이 적고,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음악활동의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느린 곡의 진행을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교사의 편중된 선곡을 막기 위해 교사 스스로가 먼저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유아 음악교육의 이해	6
1) 유아 음악교육의 중요성	6
2) 유아 음악교육의 목적	7
2. 유아교육기관의 음악환경	9
1) 유아교육기관의 음악영역 구성	9
2)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음악 활동	10
3) 유아교육에서의 교사 역할	17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연구절차	26
3. 자료수집	27
3. 자료분석	29
IV. 결과 및 해석	31

1. 무지개반 음악활동의 실제	31
1) 노래부르기	31
(1) 유아들의 동참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노래부르기 ...	31
(2) 유아들의 언어적 표현을 유도하는 학습방법으로서의 노래부르기	37
(3) 생활주제 전달에 용이하고 무난한 음악활동으로서의 노래부르기	43
2) 악기 연주	45
(1) 소리를 탐색하는 악기 연주	45
(2) 유아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악기 연주	51
3) 신체표현	56
2. 음악활동의 어려움	58
1) 활동자료의 부족	58
2) 음악활동에 대한 교사 선입견으로 인한 제약	63
3) 교사의 음악적 자신감 부족	67
V. 결론 및 논의	7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무지개반의 하루 일과	22
<표 2> 무지개반 유아 명단	25

그 립 목 차

[그림 1] 무지개반 놀이영역 배치도	24
[그림 2] 악보-안녕 안녕 선생님	32
[그림 3] 악보-오늘은 몇 월 몇 일 일까	38
[그림 4] 악보-아기 공룡 껍질을 깨고 탁	68
[그림 5] 악보-아기 공룡 껍질을 깨고 탁	6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인간의 삶에서 느낌과 감정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인간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언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에게 음악은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유아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음악교육에 대한 배경지식과 교수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교육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음악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의 음악교육철학자 Reimer의 “음악이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소수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다”(김영연, 1996. 재인용)라는 정의를 들여다보면 음악이란 예술가들의 전유물로 특수하게 간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적 지능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음악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Gardner는 다중지능이론을 통해 주장하였다(이은화 외, 2001). 유아들은 누구나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악적 잠재력은 유아들에게 음악환경을 다양하게 제공 해 줌으로서 음악적 능력으로 발달될 수 있다. 유아기는 음악적 능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유아기에 형성되고 발달되는 여러 능력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또한 다른 능력보다도 우선 시 해야 될 음악 능력이 유아기 때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이다(이은수, 2004). 이 시기에 적절한 환경과 체계적인 음악교육이 제공 될 때 유아의 인격적 성장과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아의 음악활동은 놀이를 통해 악기를 탐색하고, 음악을 감상 하고, 노래를 부르며 신체를 통한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음악적 활동은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며, 정서의 안정과 자기표현의 학습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은 유아들이 주체가 되는 유아 중심적 활동이기보다 교사의 음악적 지식 부족과 이해 부족에 의해 교사 중심의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들은 유아기 음악교육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 하지만 실제로는 음악적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무의식적인 음악교육이 교수되고 있다(이민정, 2002).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 음악활동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연구와 음악교육 방법으로 유아 노래 부르기 지도에 관한 연구, 유아 음악 듣기 청음 지도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리듬악기를 이용한 음악활동, 유아음악 감상 실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유아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음악활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유아 음악교육 활동의 순서는 노래 부르기과 율동, 악기연주로 나타났다(김금옥, 2000; 박미용, 2003; 심정남, 2007; 이은수, 2004). 노래 부르기가 가장 많이 실시되는 이유로는 음악활동 중 수업 준비하기가 쉽고(박미용, 2003) 교사가 전달하기에도 쉬운 활동이며(김주현, 2000) 교사의 자신감이 부족하고(윤현진, 2002; 심정남, 2000) 자료준비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이은수, 2004) 보고되었다. 유아 듣기 지도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미진(2003)은 Dalcroze의 유리드믹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청취력과 창의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이현주(2006)는 유아 듣기 음악지도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사의 음악 듣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유아 듣기 발달을 위한 음악듣기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장길자(1999)는 음악기초능력 중 하

나인 유아의 음악 감수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유아 음악듣기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양성연(2004)은 유아의 듣기 활동이 유아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음악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리듬악기를 이용한 음악활동에 대하여 송연아(2002)는 다른 악기에 비하여 리듬악기의 사용법은 유아들에게 유용하며 리듬악기가 유아의 음악적 능력 중 리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리듬악기를 이용한 음악활동이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아 음악감상에 있어서 김승희(2007)는 설문지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음악 감상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음악활동 중 음악 감상활동의 시간부족으로 감상활동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악 감상 활동자료로 CD 플레이어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음악 감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교사 지도법의 부족으로 음악 감상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아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대하여 구미란(2005)은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음악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남소현(2006)은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음악교육이 유아들을 발달을 이해하며 전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자영(2003)은 유치원 교사들이 음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음악전문 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간의 음악적 상호작용과 음악활동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와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박미경, 엄정애(2008)는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해 ‘새노래 배우기’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유아교사의 음악적 개념과 지도의 어려움에 대하여 유아의 음악적 발달에 대한 교사의 지식 미흡과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음악적 개념에 관한 실제적 적용의 한계, 음악교과에 대한 소외와 낮은 기대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실질적 부분에 대한 시사도 크지만 이는 ‘새노래 부르기’에만 초점을 둔 연구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유아 음악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실험연구, 설문조사 연구, 문헌연구 등 양적 연구로 진행되어오다가 최근에는 유아 음악교육에서의 참여관찰과 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 음악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살펴보면 광진이(2007)는 유치원의 하루 일과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일상적 소리와 행동 속에서 음악적인 소리와 행동을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음악적인 소리와 표현에 대해 자발적인 음악 행동으로 해석하고, 음악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아의 개인적 필요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문화기술적 연구로 강은정(2008)은 유치원에서 하루일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 중에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교사들이 음악교육 활동전개 뿐 아니라 활동계획과 도입과 준비에도 여러 가지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사의 개념과 지식의 부족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들에게 음악교육은 기능적 교육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화 기술적 연구들은 유아들의 음악활동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 중 음악과 관련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한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음악활동에 초점을 두어 여러 음악활동에 대한 의미와 교사들이 겪고 있는 음악활동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만 4세 무지개반에서의 음악활동의 실제와 의미가 무엇이고 교사가 음악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

엇인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바람직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만 4세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의 실제와 의미는 무엇인가?
- 2) 음악교육 활동을 실시하면서 무지개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유아 음악교육의 이해

1) 유아 음악교육의 중요성

인간은 태어나기 전, 모체의 배속 태아 때부터 소리에 반응을 한다. 태아 때부터 들어왔던 어머니의 심장 소리와 목소리는 이 후 세상에 태어나서도 인간에게 가장 안정을 느끼게 하는 소리로서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소리는 음악적인 자극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음악은 단지 소리를 들으므로 인해 인간이 느끼는 편안함, 아름다움, 즐거움, 사랑스러움 등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성의 모든 영역의 발달과 함께 음악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한다(이은수, 2004).

유아들의 음악적 행위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노래하고, 소리에 민감하다.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외부적인 음악교육의 자극을 제공한다면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은 유아들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그 시기적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Kodaly는 유아는 취학 이전에 음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 살부터 일곱 살까지의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만약, 이 시기에 음악적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음악적 운명에 손상을 입는다.”라고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이은수, 2004. 재인용), Goden은 인간 누구나가 출생과 함께 음악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다. 음악적성은 유아기 때 계속 개발시키면 상승하지만 9세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

후에는 아무리 좋은 음악적 환경이 주어져도 음악 적성은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감소된다고 주장하였다(이옥주, 2002). Seshore, Mursell과 같은 음악 심리학자들은 9세까지는 음악환경과 교육의 영향에 의하여 음악 적성의 성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음악적 성취는 계속될지 모르나 음악적 능력은 거의 고정되어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안재신, 2008. 재인용).

따라서 유아음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아들의 생활과 교육이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습득되어야 하는 많은 음악적인 여러 요소에 대한 감각이 유아기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아기는 인간의 음악적 발달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동안 음악에 필요한 감수성과 음악적 능력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며 유아기 음악 경험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2) 유아 음악교육의 목적

유아기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가나 음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활동의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음악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음악을 통한 표현과 감성이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음악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기 음악교육은 기능의 연습이기보다는 음악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고 좋은 음악 표현이나 감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아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음악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김혜경, 2008).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생활 5개 영역 구성에서 표현생활 영역은 유아들이 자연과 사물을 탐색하고 창의적 표현 능력과 심미감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표현활동은 유아들의 주도적이고 능동적 학습 활동을 권장하

며 결과우선이 아닌 활동의 과정을 중요시 여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Moomaw(1984)가 제시한 유아 음악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은 경험을 통해 유아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정서적 감수성을 기른다. 음악은 유아의 성숙한 감정표현 및 통제 발달을 돕는다.

둘째, 음악적 경험은 유아의 인지 발달을 돕고 소리의 탐색과 성질, 음악의 특성에 대한 인지개념을 발달시킨다.

셋째, 음악은 다양한 소리의 이해 및 듣기 능력을 증진시킨다. 소리 듣기는 노래하기, 악기 다루기, 음악 만들기 및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등의 음악 활동에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다양한 음악을 통한 신체 표현은 자신의 신체 인식과 대 근육 발달을 증진된다.

다섯째, 음악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성공감은 자아개념 발달을 촉진한다.

여섯째, 자유로운 표현과 음악을 만드는 경험은 창의성 발달이 증진시킨다.

일곱째, 음악 경험과 관련된 노랫말이나 단어의 사용은 언어 발달을 촉진시킨다.

여덟째, 대집단과 소집단에서의 음악경험을 통한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은 소리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음악적 감수성을 최대한 길러 주어야 하며, 음악을 이해하고 창작하고, 연주할 수 있는 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안재신, 2008).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 음악교육의 목적은 유아들의 창의적이며 감성적인 음악적 능력의 개발의 위해 다양한 음악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며 음악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음악교육이 다양한 능

력발달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음악적인 잠재능력의 개발과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음악적 기술을 발전시켜야한다.

2. 유아교육기관의 음악환경

1) 유아교육기관의 음악영역 구성

유아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음악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교구가 마련된 물리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음악영역의 필요에 대하여 Shelley(1977)는 대집단, 소집단, 개별 활동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악기와 재료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조작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허용되어야 유아의 음악적 성장을 가져온다고 보았다(김혜경, 2008. 재인용).

이민경(2008)이 제시한 음악영역의 조건을 살펴보면 음악영역은 시끄럽고 건조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쌓기 영역이나 소꿉 영역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창의적인 움직임과 상상놀이에서 상호자극을 받아 통합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언어영역을 근처에 배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음악 영역에서 신체활동이 주로 동반되는 특성으로 소음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카펫을 깔고 악기장의 경우 다양한 악기의 수납을 위해 뒤 쪽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좋다(김주현 2000). 유아의 간단한 악기의 경험을 위해 리듬악기(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리듬막대, 클레이브스, 톤 블록, 우드블럭, 마라카스, 귀로, 핸드벨, 손가락 심벌즈등), 멜로디악기(실로폰, 스텝벨, 목금, 피아노 등), 현악기(오토하프, 우크렐라, 기타, 만돌린 등) 전통악기(소고, 장구, 징, 팽과리,

북 등)를 비치하고(이면경, 2008) 주제나 노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유아들의 음악적 자극을 위해 필요하다. 그 외에 그림과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음악영역의 벽면을 구성하고 시청각 장비로 유아들이 조작이 가능한 녹음기와 테이프, CD 플레이어, 비디오 등이 비치되어야 하고 악기를 포함한 자료는 2~3주마다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김혜경, 2008).

유아의 음악적 자극을 위해 유치원 교실 내의 청각적 자극 환경의 제공도 중요하다. 배경음악은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활동시간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경쾌한 종류의 음악이나 새로 배울 노래 등을 선정하여 들려준다. 소리는 너무 크지 않게 주의하며 유아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영연, 2006).

이와 같이 음악영역의 구성은 유아들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자유로운 탐색과 경험을 통해 음악적 성장과 흥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음악 활동

유아 음악교육은 우리나라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표현생활 영역에 속한다. 표현생활은 탐색, 표현, 감상으로 분류되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탐색영역에서는 소리 탐색하기 표현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감상영역에서는 음악 감상하기, 예술적 표현 존중하기, 전통예술에 친해지기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와 같은 내용의 음악활동을 유아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초적이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남소현, 2006).

본 연구에서는 유아 음악교육의 내용을 소리를 탐색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어보기, 음악 감상하기, 신체로 표현하기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소리를 탐색하기

소리를 탐색하는 것은 유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접해있다. 이와 같은 소리 탐색의 경험은 유아의 음악적 성장을 자극하는 시발점이 되고 성장하면서 유아의 일상에서의 소리의 경험이 음악적 자극과 관련되어 진다. 특히 발달단계상 음악성 발달의 최적기인 유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정이 된다(강은정, 2009)

유아들은 새로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 신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물을 이용해서도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새로운 악기에 대한 소리 탐색 등 끊임없는 소리의 발견을 위해 탐색을 시도한다. 이러한 유아들의 소리 탐색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지만 유아가 주변 환경과 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는 과정은 기본적인 감각이며 이는 유아의 음악적 재능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다(남소현, 2008).

또한 유아들의 주변에 대한 다양한 소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유아의 상상력 개발에 무한한 자극이 되며(안재신, 2008) 소리에 대한 주의 깊은 탐색은 유아들의 자기 생활과 주변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된다(김명순·이경자, 1998). 현재 우리나라 2007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5개 생활영역 중 표현 생활영역에서 탐색활동도 자연과 주위 환경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구별하거나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소리를 탐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리의 탐색은 유아의 음악적 자극과 반응, 그리고 음악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소리의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된 환경을 충분히 다루어볼 기회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리를 탐색하는 활동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2) 노래 부르기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소리를 내고 소리의 발성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발성은 우연히 산출되는 목 울림 소리로 부터 시작된다(주영희, 200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말을 하게 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래부르기를 배우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긴 과정이다. 유아들은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안재신, 2008).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노래를 통해 전달하게 되고 언어적 표현보다는 노래부르기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 음악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래 부르는 가장 기초적인 음악적 능력으로 유아에게 있어 다른 음악영역의 학습과 음악적 감각과 기술을 형성하기 위한 음악교육 과정의 기본이 되는 능력으로서 음악교육의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활동이 된다(임혜정, 2006).

김신자(1972)는 만 4세가 되면서부터 유아들의 언어구사 능력의 발달과 함께 사고력이 발달하고 또한 기억력의 발달로 인해 노래를 듣고 다시 불러보는 반복을 통해 레퍼토리(repertory)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전인옥(1992)은 유아들이 만 4세가 되면서부터 음역의 폭이 점차 넓어져서 노래를 부를 때 보다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음의 높낮이와 길이, 음색의 차이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래부르기는 유아교육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동으로(김금옥, 2000; 박미용, 2003; 심정남, 2007; 이은수, 2004) 노래의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김혜경(2001)은 음악교육에서의 적절한 노래의 선택을 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노래의 내용은 유아의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노래의 조성

은 밝고 건강한 느낌의 장조를 사용하고 셋째, 유아가 부르기에 무리가 가지 않는 형식의 한 도막 형식(8마디)나 작은 세 도막 형식(12마디)의 곡을 선택하고 넷째, 노래의 박자와 리듬은 유아들이 반응을 잘 나타내는 2/4박자, 4/4박자, 3/4박자가 좋으며 유아들이 어려워하는 점음표나 당김음, 셋잇단음표가 많이 사용되거나 너무 빠른 템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다섯째, 음역은 너무 넓지 않고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래 부르기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고 음악적 기본 개념과 음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사는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3) 악기 다루어보기

음악적인 호기심이 풍부한 유아들에게 소리가 나는 것은 악기가 된다. 교사는 가능한 많은 악기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악기의 사용을 통해서 음악의 풍부함을 시험해 보고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김혜경, 2001). 악기 다루기는 유아들이 음색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며, 청각적 현상에서 자극과 반응을 느끼게 하며 선율의 높낮이, 음악 길이, 음의 강약 등의 기본 개념을 직접 체험하도록 도움을 준다(안재신, 2008). 이와 같이 악기 다루기는 음악활동의 기본 수단이 되며 음악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자극시키므로 교사는 풍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음악영역을 구분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악기를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남소현, 2006). 또한 교사는 악기를 선택할 때에도 가급적 유아가 원하는 악기를 제공하고 유아가 다양한 악기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며 소개하고 개별적인 악기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 가락악기를 첨가하여 합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영연, 2006).

유아 교사가 음악활동에서 악기연주와 연주활동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김명순과 조경자(1998)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악기연주는 처음부터 지도하기보다 소리 탐색의 도구로 활용하고 둘째, 노래 전체를 합주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참여하도록 하고 셋째, 유아가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악기 다루기를 지도할 때 악기의 연주 방법과 유아의 표현과 신체 리듬감을 기르는 기술적인 면을 돕는 의미와 유아에게 정서적 감성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안재신(2008)은 유아의 악기 다루기가 어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계획 속에서 반복 중심의 악기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끊임없이 발휘되는 유아들의 상상력이 깃뻛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의 악기 다루기는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과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과 경험을 위해 다양한 악기의 구성이 필요하며 소리를 탐색을 위한 충분한 시간제공과 악기 연주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음악 감상하기

음악을 감상 활동은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음악의 목적은 소리에 대한 인식과 구별, 음악적인 감수성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다(이민경,2008).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주의를 집중하고 음악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생각들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보고, 비교해보고, 나누어보는 과정이다(남소현, 2006). 이러한 음악 감상은 다양한

음악 듣기를 통하여 느낌을 즐겁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안재신(1996)은 노래 부르거나 악기 다루기, 창의적 표현활동, 신체 표현하기 등의 음악적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인이 바로 감상(듣기) 활동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음악적 활동에 있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음악 감상이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의 감상 활동은 음악적 발달을 위한 음악활동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혜경(2008)은 유아들이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들었던 경험을 통하여 그들 나름대로 취향에 맞는 음악을 선별하게 되고, 선별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고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기호의 형성을 되므로 유아들의 음악에 대한 기호 개발을 위하여 교사들은 적절한 감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음악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나 다양한 소리, 언어 등을 주의 깊고 섬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유아들의 지적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안재신, 2008).

이와 같이 음악교육의 여러 활동 중에서 중요한 음악 감상 활동에 대한 방법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사의 준비된 계획으로 의도적인 시간을 통하여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감상 활동을 하는 경우와 또 한가지는 자유 선택 활동시간과 대집단 활동 중에서 교육의 목적을 두지 않고 유아들이 무의식중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소극적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이홍수, 1990). 김영연(2006)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들려지는 음악에 대하여 순수한 감상이나 교육의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들려지는 Musik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 중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교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음악에 대한 경험과 지식, 음악 감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음악 감상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저 단순히 음악을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흥미 있고 즐거우며, 교사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음악 감상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신체로 표현하기

유아 음악활동은 유아의 신체 발달을 촉진시킨다. 유아 음악활동에 있어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하는 음악활동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 신체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유아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다(이민경, 2008).

음악은 유아의 음악적 본능을 자극하고 신체를 움직여서 음악의 리듬에 호응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음악적인 개념이나 이미지를 몸의 움직임으로 연결하여 심신의 일치조화를 이루고 관찰력이나 판단력, 상상력, 창조력을 키워준다(안재신, 2008). 또한 유아들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하며 그러한 움직임 자체를 즐긴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체적인 발달과 병행하여 더욱 세려되어지고 음악적 특질에 대한 이해가 가미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음악활동으로 발전되어진다(김영연, 2006). 즉, 신체 표현을 통한 음악적 활동은 유아들로 하여금 신체를 움직여서 음악의 리듬을 호응하고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에게 감각적이고 운동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는 유아의 초기발달 측면에서 볼 때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다(남소현, 2006).

Dalcroze(1865-1950)는 일찍이 리듬감의 습득은 반드시 신체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역설하면서 유아들은 음악을 신체와 연결되어진 음률과 동작이라는 공간적, 시간적, 역학적 종합체로 표현한다고 하였다(김영연, 2006). 이는 신체로 표현하는 유아들의 음악활동이 유아 음악교육에서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과 흥미를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신체로 표현하는 음악은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활동은 유아들이 자기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면서 음악에 반응하고 표현함으로써 음악적 리듬감과 신체적 감각을 체험하며 배우게 된다.

이처럼 신체 표현을 통한 음악활동은 유아의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유아가 스스로 새로운 동작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상상력을 기르게 하는 유아의 창의성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협동하여 집단을 이룬 신체 활동은 유아들은 신체발달과 정서발달, 그리고 사회성 발달 등의 전인적인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남소현, 2006).

김영연(2006)은 동작으로 표현되어지는 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유아의 동작은 놀이를 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고 둘째, 유아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느끼고 이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요령을 체득하여야 하며 셋째, 자연스러운 동작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언어와 목소리의 높낮이, 유아를 대하는 태도, 교사와 유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작을 쌓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신체로 표현되는 음악 활동에 대하여 교사는 유아의 신체가 또 다른 음악적 언어소통의 수단임을 이해하고 유아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유아들이 표현하는 신체적 표현과 신체적 언어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들의 신체적 발달과 음악적 발달, 전인적 발달을 위해 교사의 신체로 표현되는 음악활동을 위한 계획이 분명해야 하며 교사의 적절한 개입으로 유아들이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유아음악교육에서의 교사 역할

유아 음악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알아야 할 음악적 지식과 유아들의 음악 발달에 맞추어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과 자세는 중요하다. 최근 유아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전문성과 같은 질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의 음악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는 이유는 음악이라는 교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혜경(2008)은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교사는 유아들의 적절한 음악환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아의 발달수준의 이해와 기초적인 음악적 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유아들에게 적절한 음악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유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발견해야 하며 셋째,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이 음악 비전공자이지만 음악경험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성 개발이 교사의 능력을 개발시키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교사가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전래동요, 대중가요, 민요, 등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눈 목록을 생활주제 또는 선율과 노랫말 등으로 구분하여 교사 스스로를 위한 목록이 필요하며 다섯째, 기록된 곡을 완전히 익혀서 새로운 노랫말로의 개작으로 활용해 보고 여섯째, 새로운 노래를 배우기 위해 음반을 활용하며 일곱째, 유아들의 음악적 흥미 유발을 위해 교사 자신의 흥미 원칙을 적용시켜 교사가 즐기지 않는 노래나 활동을 시도하여 유아들의 흥미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악기 활용으로 교사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법을 익혀 두어 음악활동 지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1995)에서는 유아중심의 음악교육 과정에 기초하여 유아에게 음악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 첫째, 유아를 사랑하고 둘째, 음악의 가치를 알고 음악은 일찍 가르치는 것이 유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에게 음악을 흥미롭게 제시하며 넷째, 교사가 음악적 자신감을 가지고 유아의 음악적 성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다섯째, 교사의 음악적 능력과 유아와의 음악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여섯째, 활동적인 방법으로 유아들과 음악적 상호작용을 하고 일곱째,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에 적합한 음악적 도구를 교구로 사용하며 여덟째, 음악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음악적 자원과 조언을 구할 줄 알아야 하며 아홉째,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음악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열 번째, 유아들의 관심이 활동방향에서 벗어날 때 민감하

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명순, 조경자(2000)는 첫째, 음악적 개념과 기술의 전달보다는 즐겁고 유아들이 음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둘째, 음악 활동은 매일의 일과에서 친근하고 편안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유아의 느낌과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넷째, 교사는 유아와의 음악적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섯째, 유아 개개인의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체계적인 음악적 경험을 연간 및 월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여섯째,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으로 활동을 계획하여 실외 놀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일곱째, 교사 스스로가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을 가치 있게 여기며 마지막으로 유아의 집중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아 음악교육에서 교사는 유아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유아가 음악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하고 좋은 음악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안재신, 2001)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음악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음악에 관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점검하여야 하고 교사 스스로의 음악적 흥미를 위한 관심과 개발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만 4세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활동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교육을 실시하면서 무지개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3개월 동안 참여관찰과 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절차, 자료수집,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1) 연구기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사랑유치원¹⁾을 연구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사랑유치원은 오랫동안 유아교육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유치원이다. 단독 건물에 총 6개 반(만 5세반 2학급, 만 4세반 2학급, 만 3세반 2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담임교사는 모두가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다.

사랑유치원의 내부 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과 2층, 그리고 옥상 실외 놀이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지하에는 영어교실이 따로 구성되어 1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영어 교재와 교구들이 준비되어있다. 그리고 시청각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유치원의 큰 행사를 진행 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들의 식사와

1)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유치원명, 학급명, 교사명, 유아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간식을 준비해 주는 주방도 지하에 함께 있다. 유희실은 동적인 활동과 대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내에 마련되었으며, 주방기구 모형과 소꿉놀이 도구 인형극 틀, 볼풀장, 매트가 준비되어 있고 정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를 위해 종이접기 테이블을 따로 준비해 아이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유희실과 계단 사이에는 작은 분수가 있어서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과 물속에 물고기를 볼 수 있게 되어있다.

1층에는 만 3세 별님반과 만 4세 달님반, 만 4세 햇님반 교실이 있고, 사무실과 교사실이 위치해 있다. 1층에 있는 현관은 투명유리로 투영성을 강조하여 외부와 내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유리문 사이에 흠을 주어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였다. 출입구에는 신발장과 게시판이 구비되어 있고 2층에는 만 5세 무지개반, 만 5세 하늘반, 만 3세 꽃님반 교실이 있다. 옥상에는 실외놀이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바닥에 인조 잔디가 깔려 있으며 자전거와 자동차가 구비되어 있고 단순히 탈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 길과 횡단보도들을 그려 놓아서 유아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미끄럼틀과 축구골대도 설치되어 있다.

유치원의 하루일과는 종일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후 2시까지 운영되고 오후 종일반은 혼합 연령반으로 구성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도보를 이용하는 유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아들은 유치원 차량으로 등·하원을 하였다.

2) 연구 참여 학급

본 연구에 참여한 무지개반은 사랑유치원의 만 4세 학급이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는 단일연령의 학급으로 연구자는 매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을 관찰하였다. 무지개반의 수요일

과 목요일의 일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무지개반의 하루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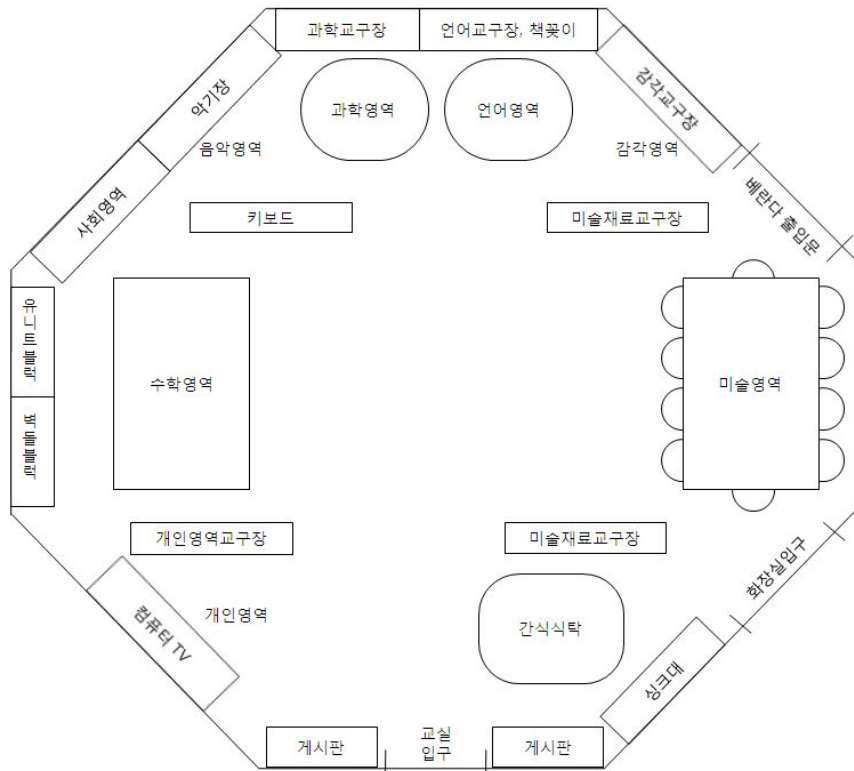
시 간	하 루 일 과
09 : 30 ~ 09 : 50	등원, 자유선택활동
09 : 50 ~ 10 : 00	정리정돈
10 : 00 ~ 10 : 20	일과소개, 이야기 나누기
10 : 20 ~ 10 : 40	대집단활동(수요일, 목요일은 음률활동 진행됨)
10 : 40 ~ 10 : 50	영어수업 or 동화읽기, 감상
10 : 50 ~ 12 : 50	점심 및 휴식
12 : 50 ~ 13 : 20	대소집단활동
13 : 20 ~ 13 : 40	자유선택활동
13 : 40 ~ 13 : 50	정리정돈
13 : 50 ~ 14 : 00	일과 평가
14 : 00 ~	귀가지도

무지개반 유아들은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등원을 하는데 유치원 각 교실에는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온 유아를 배려해서 교실 한곳에 아침을 대신할 간식을 항상 준비 해 두었다. 대부분이 떡, 빵, 씨리얼과 우유로 식사대용으로 가능한 간식들이다. 같은 시간 유아들은 옷과 가방을 정리하고 교실에서 자유선택 활동을 한다. 10시가 되어서 등원이 마무리 되면 정리정돈 후 교사는 유아들과 교실 중앙으로 모여 앉은 후 인사와 오늘의 날짜와 요일, 그리고 날씨를 노래로 부르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은 15~20분가량 진행 되었으며 주로 새 노래 배우기와 악기를 다

루고 울동을 하였다. 목요일은 원어민 교사의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거나 교사가 유아들이 원하는 동화책을 함께 읽는다. 이후 유희실에서 40분가량 유아들은 신체 활동을 하였으며 실내 활동이 끝나면 점심준비를 하고 가정에서 가져온 빈 도시락을 꺼내서 유치원에서 준비한 음식을 담아서 먹었고 식사 자리는 유아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유아들은 개별적으로 준비된 양치 도구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양치 한 후 개별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졌고 귀가 10분 전에는 하루일과를 평가하고 귀가 지도가 이루어졌다.

사랑유치원의 교실은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넓은 창을 두어 사계절 모두 햇빛이 잘 들어와 따뜻하고 밝게 되어 있으며, 2층의 교실 경우 천장을 높이하고 투명 창을 설치하였다. 교실의 벽면은 계절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림 자료나, 그래프, 작품들을 전시하여 유아의 관심을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 내의 교구장은 유아의 성장발달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고, 교구장에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교실에서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실마다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교실과 바로 연결되어있었다. 개인영역(컴퓨터, 손 씻기 틀, 전신 거울, 머리 빗기, 단추 끼우기 등), 언어영역(이야기판, 동화책, 움직이는 자모음, 글자도장, 여러 가지쓰기 도구 등), 감각영역(오감을 예민하게 하기 위한 자료, 촉각판, 온도판, 감각책 등), 수학영역(거북이 게임, 수 막대, 퍼즐, 주사위 게임 블록 등), 사회영역(인형극 틀, 소꿉놀이, 가게 놀이, 손 인형,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 과학영역(동·식물 기르기, 돌보기, 지구본 등), 음악영역(마라카스, 캐스터네츠, 핑거심벌즈, 클래터, 우드블럭, 기로, 물고기기로, 방울, 탬버린, 실로폰 등), 미술영역(여러 가지 재질의 지류, 다양한 꾸미기 재료, 그리기 도구, 미술 감상 자료 등)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각 영역의 환경구성이나 교구는 생활주제에 따라 계속 바뀐다. 무지개

반의 놀이영역 배치도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무지개반 놀이영역배치도

3) 교사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무지개반의 담임교사이다. 무지개반에는 담임교사 이외에 부담임 교사가 있었지만 유아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담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담임교사인 엄 교사이다. 엄 교사는 3년제 A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다른 유치원에 1년간 재직 한 후 사랑유치원에서 현재 3년째 담임을 맡아 재직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었다. 엄 교사는 짧은 머리에 키가 크고 아이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차분히 수업을 진행하였고, 때로는 유아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기도 하였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엄 교사는 유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언어영역이나 미술영역, 사회영역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영역에서는 잠깐씩 관찰자의 입장으로 참여하였고 주로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 교사는 음악을 좋아하였으며 유치원 내의 음악활동이나 운동회 응원활동에서도 음악영역을 맡고 있었다.

4) 유아

사랑유치원 무지개반 유아는 남아 18명 여아 9명으로 총 27명이다. 남아유아가 여자유아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남아유아가 많다보니 무지개반 분위기는 정적이기 보다는 활동적이었다. 유아 중 11월 말에 남자 유아 1명이 중국으로 이사를 가고 며칠 후 새로운 남자 유아가 입학하며 무지개반으로 배정 되었다. 반 유아명단에 대한 설명은 표 2 와 같다.

<표 2> 무지개반 유아명단

번	남 아		여 아	
	유아명	연 령	유아명	연 령
1	김대현	5년 5개월	이혜민	5년 7개월
2	한수연	5년 1개월	허예진	5년 2개월
3	박노진	5년 2개월	배규리	4년 8개월
4	남민우	5년 2개월	오민진	4년 9개월
5	최승필	5년 6개월	서유란	5년 1개월
6	염상원	5년 2개월	정인혜	5년 2개월
7	김영재	5년 2개월	주영현	5년 2개월
8	오승현	5년 9개월	김나영	4년 8개월
9	최명진	5년 1개월		
10	박윤수	5년 8개월		

11	지강원	4년 11개월
12	최민성	4년 10개월
13	최진욱	4년 11개월
14	정진하	4년 8개월
15	최현민	5년 2개월
16	신승민*	5년
17	신승현	5년
18	남상욱	4년 10개월

* 2학기 신입 유아임 / 연령 : 2007년 10월 기준

2. 연구 절차

1) 연구기관 선정 과정

본 연구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의 실제와 의미, 그리고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자 서울시에 소재한 여러 유치원을 알아보던 중 사랑유치원을 연구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사랑 유치원은 교실에 음악영역이 갖추어져있고, 하루 일과시간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이 마음껏 음악영역을 탐색 할 수 있었으며 일주일에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는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시간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어서 교실에서의 음악교육활동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곳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지를 승인 받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문제, 관찰대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연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보낸 후 사랑유치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 사랑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원에서 추천한 교사를 만나 보았다. 추천을 받은 엄 교사는 사랑유치원에서 다른 교사들보다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교사 자신도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도 운동회 응원지도를 맡았으며 방과 후 수업에서도 음악활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교사 개인적으로도 피아노 연주, 오카리나 연주 등 음악과 관련된 연주와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엄 교사는 사랑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에 관련된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도 많아 사랑유치원에서 엄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추천해 주었고, 엄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만 4세 무지개반에서 연구자가 관찰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엄 교사에게 앞으로 관찰하게 될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의 실제와 의미, 음악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 활동에 참여 관찰을 하며 교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문헌 수집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참여 관찰

선정된 사랑유치원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24일까지 매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유아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시간과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대집단 음악교육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관찰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교실 입구 쪽에 위치한 테이블과 음악영역에서 총 12주 동안 24회에

걸쳐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악기 탐색과 같은 개인적인 음악활동과 대집단 활동에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 음악활동을 관찰하고자 수동적인 참여관찰자의 역할을 택하였다. 관찰을 하는 중 유아들에게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가능한 한 유아들의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게 노력하면서 유아들에게 직접 물어 연구자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2007년 12월 5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6회의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에는 Spradly(1980)가 제시한 '적극적 참여'를 하였다.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사랑유치원에서는 성탄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무지개반 교사의 부탁으로 무지개반 유아들이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을 선정하여 연주할 악기를 편성하고 연주할 악보를 편곡 하여 음악회 준비를 도왔다. 그리고 유아들의 연습 과정을 지켜보며 교사가 요청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학부에서 전공한 성악으로 유치원 음악회에서 순서를 맡아 연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구지를 승인한 사랑유치원과 무지개반교사와 유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연구자가 음악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과 교사와 유아들과의 신뢰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사랑유치원은 연구에 대해 열린 공간이어서인지 낯선 연구자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의 등장이 잠시 새로울 뿐 낯선 얼굴에 대한 관심이나 경계심은 보이지 않았다. 연구초기에는 연구자와 유아들 간에 대화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찰에 익숙해지고 연구자와 친밀감이 형성되자 유아들은 연구자에게 놀이와 활동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음악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아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록되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기간동안 연구지에서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사와 유아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자유선택활동과 대집단활동에서 이

루어지는 음악활동, 그리고 교사와의 형식적인 면담, 비형식적인 면담을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였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시작한 10월에는 사랑유치원에서 녹음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11월부터는 녹음기 사용을 허락하여 이때부터는 기록과 함께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활동들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찰이 끝난 다음 바로 그날의 사건과 느낌 등 관찰된 내용과 녹음자료들을 전사하여 현장기록노트를 완성해갔다.

2) 심층 면담

사랑유치원 만 4세 무지개반 담임인 엄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형식적인 면담은 총 4회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질문내용으로는 음악영역의 환경이 달라진 전과 후의 교실 분위기는 어떠한지, 음악활동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교사가 음악수업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진행을 하는지, 좀 더 활용해 보고 싶은 활동은 어떠한 것인지, 교사가 음악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등이었다. 비형식적인 면담은 교사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자유선택 활동시간이나 실외 활동과 실내 활동시간 중에 수시로 자연스럽게 잠깐씩 일상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 경우 전화 면담의 방식을 활용했다.

4. 자료 분석

만 4세 무지개반 음악활동에 대한 기록은 초기에 기록과 함께 주로 현장

노트에 의존하여 기록하였으며 11월부터는 유치원의 배려로 녹음을 하였다.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 활동과 교사의 면담 시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메모를 하여 관찰자 의견(Observer's comment)을 남기며 최대한 관찰한 날과 근접한 시간 내에 전사하여 현장기록노트를 작성하였으며 관찰한 날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연구 문제에 따라 분류하여 일차적으로 ‘음악활동의 실제와 의미’ ‘음악활동 지도 시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분류된 범주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위 범주들로 구분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peer debriefing)의 방법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과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편견에서 벗어나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무지개반 음악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면담과 유아들의 활동 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과 관련문헌들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무지개반의 음악활동의 실제와 의미, 음악활동의 어려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무지개반 음악활동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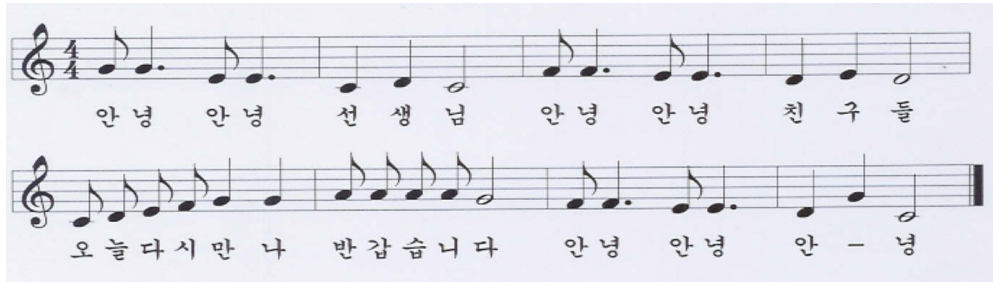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의 실제는 노래부르기, 악기 연주, 신체 표현, 그리고 전이활동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 연구자가 관찰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1) 유아들의 동참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노래부르기

노래 부르는 것은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활동 중 하나이다. 생활습관과 생활주제의 개념, 그리고 유아들의 생활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노래를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어진다. 무지개반은 아침 등원 후 제일먼저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모여 악보 1에 제시된 ‘안녕 안녕 선생님’ 노래를 부르며 아침인사를 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하루를 시작하였다. 이 노래의 가사는 하루의 일과를 알리고 시작

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며 유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다음은 무지개반에서 안녕 안녕 선생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례이다.



[악보 1]

교 사 : 오늘의 인사도우미는 누가 할까요?

상 원 : 저요~

노 진 : 저요~

강 원 : 저도 하고 싶어요

나 영 : 저두요

교 사 : 오늘은 정리정돈을 잘 한 상원이랑 노진이가 인사도우미를 하고 내일 강원이랑 나영이는 선생님이 꼭 기억해서 내일 인사 도우미를 할게요. 상원이랑 노진이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상원이랑 노진이가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인사 울동을 하며 노래한다.-

교사, 유아들 : ♪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

(관찰 2007. 10. 15)

안녕 안녕 선생님의 노래를 부를 때 인사도우미가 된 친구는 앞에 나와 노래를 부르며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인사도우미는 인사의

본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인사도우미가 되는 기준은 ‘칭찬 받는 친구’였다. 유아들은 누구나 인사도우미를 하고 싶어 했다. 교사는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여린 유아에게 인사도우미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있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교 사 : 헤민이는 의욕이 그다지 없어요. 매사에 의욕을 찾아 볼 수 없고 늘 반응 없이 앉아 있어요. 혼자서 노는 경우가 많고, 밝은 표정을 잘 보기 힘들어요. 노래를 부르거나 율동을 할 때도 동참을 잘 하지 않아서 일부러 율동을 할 때 친구들이랑 몇 몇이나와서 하도록 유도하는데 나와서 크게 율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헤민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헤민이에게 활동을 권유해서라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먼저 권유해서 인사도우미를 시켜요.

(교사면담 2007. 10. 11)

교 사 : 슷기가 없는 상욱이는 부끄러움도 많고 내성적이어서 율동을 하거나 인사 도우미를 하거나 이야기 나누기의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소리가 작고 떨어져 자신 없어 하지만 끝나고 자기 자리에 들어간 후의 표정은 정말 만족스러워하고 좋아 하거든요. 인사도우미를 할 때에도 앞에 나와 얼마나 반듯하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귀엽죠.

(교사면담 2007. 10. 15)

교사는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의 유아들에게 활동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 활동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상욱이가 무지개반 유아들 앞에서 인사도우미를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상욱이가 인사도우미를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사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한편 노래 부르기는 대집단 활동을 할 때 몇몇 유아들을 칭찬으로 집중 시키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관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집단 노래 부르기 시간에 대현이가 교사의 말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옆에 앉은 규리의 머리카락과 머리 방울을 만진다. 규리는 싫다는 표현으로 머리를 흔들며 팔꿈치로 대현의 가슴을 밀어낸다. 그럴수록 대현이는 웃으며 머리카락을 만진다.

규 리 : 선생님 대현이가 자꾸 머리 만져요.

교 사 : 대현아 여자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싫어해. 하지 마세요~ 자, 다시 불러보자.

교사, 유아들 : ♪아스팔트 위에 깔린 노란 낙엽. 낙엽은~~~~~..♪

교사와 무지개반 유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대현이의 장난은 규리에게만 아니라 앞에 앉은 영현이의 니트 옷에 달린 작은 방울들을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소리는 내지 않고 입 모양을 과하게 크게 찌찌 벌린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킁킁 웃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교 사 : 자 그럼 이번에는 대현이가 앞에 나와서 불러볼까?

대 현 : (부끄러운 듯이 나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겨우 부른다.)

교 사 : 대현이 참 잘 했죠? 박수~~!!

대 현 : (부끄러운 듯 웃으며 자리로 들어온다.)

한동안 대현이의 장난은 멈추었다.

(관찰 2007. 10. 24)

교 사 : 수업을 하다보면 잘 따라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가끔 제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떠들거나 산만한 아이에게 제가 너무 신경을 써서 속상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 활동이 엉망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떠드는 친구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지적하기보다는 칭찬을 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웃으며). 그래도 칭찬으로 토닥이는데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좋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관심이잖아요. 오늘 대현이도 그랬구요.

(교사면담 10. 24)

엄 교사는 장난을 치거나 집중하지 않는 유아들에게 지적하기보다 칭찬과 관심의 방법으로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이런 유아들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의미가 친구들과 교사에게 관심을 요구하는 있음을 교사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대현이도 교사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고,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있음을 인식한 다음에는 교사의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교 사 : 아이들이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겨우 집중되었는데 몇몇 아이들 때문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몇몇 아이들이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면 기대 때문인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장난이 줄고 정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할 때 사용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요.

(교사면담 2007. 10. 1)

엄 교사는 많은 유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며 친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활동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분위기를 흐트리는 유아에게는 지적보다는 교사와 친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활동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교 사 : 대현이는 남자 아이치고는 말을 잘 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위로 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형이랑 형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서 또래보다는 많은 경험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끔 수업 내용이 대현이에게는 시시할 수 있어요. 대현이가 모든 면에서 빠르다보니 활동시간이 재미없고 그러니까 장난을 치거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언어를 쓰게 되는 건데... 다른 친구들보다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현이는 늘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어서 섭섭해 하는 것 같아요. 대신 대현이에게 관심의 방법으로 인사도우미를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대현이는 제가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 같아요.

(교사 면담 2007. 10. 24)

대현이는 무지개반에서 똑똑한 아이라고 교사와 유아들에게 인식되어진 유아이다. 대현이는 한글도 다른 유아들에 비해서 잘 읽고 잘 썼으며 위로 형이 있어서 형 또래와 어울려서 경험한 것이 많아 만4세 또래 유아들보다 인지적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이 빨랐다. 이러한 이유들이 대현이에게는 만 4세 또래 활동이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사는 이야기하였다. 때때로 대집단 음악활동에서 산만한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교사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과 언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사는 대현이의 행동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다. 간간히 주위 유아들에게 일방적인 장난을 치면서 음악활동을 방해하는 대현이를 칭찬과 관심으로 집중

시키기도 하였다.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교사와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대현이는 좋아한다고 하였다. 대현이의 또래보다 빠른 발달이 간혹 음악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기회를 통해 대현이에게 교사의 관심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활동에 동참시키는 것은 교사가 음악활동에서 기질이 다른 유아 통제의 수단으로도 보였다. 무지개반에서 노래는, 단순히 음악활동으로만이 아닌 유아들의 동참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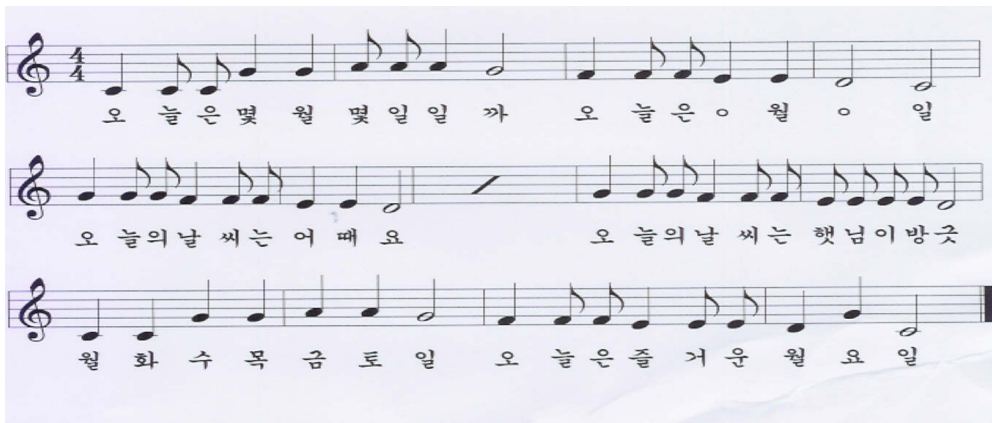
(2) 유아들의 언어적 표현을 유도하는 학습방법으로서의 노래부르기

음악의 표현은 노래나 연주, 율동 등 창작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언어나 글씨로 드러내는 감정 표현 또한 음악적 표현의 부분이다. 무지개반에서는 매일아침 달력의 날짜와 요일을 알아보고 그 날의 날씨를 악보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래와 언어로 표현하였다. 무지개반 유아들은 요일과 날씨를 노래를 통해 학습 하며 날씨의 표현은 교실의 창을 통해 관찰하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였다. 다음은 무지개반의 대집단 음악활동의 시작부분이다.

교사, 유아 : ♪오늘은 몇 월 몇 일 일까 오늘은 10월 18일♪
 교사 :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 성관이가 얘기 해 볼까?
 성관 : 해님이 떴어요.
 교사 : 그래요, 오늘은 해님이 떴네요.
 예진 : 해님이 웃어요.
 교사 : 정말, 해님이 웃고 있어요.
 인혜 : 나뭇잎이 반짝여요.

교사 : 해님이 나뭇잎을 비추어 반짝이네요.
 승현 : 바람이 불어요.
 교사 : 우와, 사랑살랑 예쁜 바람이 불어요.
 민성 : 그런데 유리창이 흐려서 반짝이는 게 많이는 안 보여요.
 교사 : 그랬네요. 유리창이 더 깨끗하면 좋겠네요.
 좋아요~, 오늘은 해님이 뜨고 바람도 불어요. 그러면 오늘
 의 날씨는 해님이 방긋
 교사, 유아 : ♪오늘의 날씨는 햇님이 방긋.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
 거운 목요일♪

(관찰 2007. 10. 18)



[악보 2]

실제로 유아들은 노래를 하며 날씨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아침 등원길의 날씨를 자세히 연상하며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치면서 지나온 것들에 대한 연상은 유아들이 기억을 통해 노래와 언어로 표현 되었다.

교사 :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
 진하 : 저요~, 비가와요. 그래서 장화신고 왔어요.
 민진 : 비가 와서 꽃들이 물을 먹어요.

희선 : 하늘이 어두워요.

민우 : 가방에도 비가 내렸어요.

도연 : 나는 우산을 큰 거 써서 비를 하나도 안 맞았어.

교사 : 그래요. 오늘은 비가 내려서 우산도 쓰고 장화도 신고 왔지요~. 꽃들도 물을 먹고, 비가 내려서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해요. 그럼, 오늘의 날씨는~

교사, 유아들 : ♪오늘의 날씨는 비가 내려요.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관찰 2007. 10. 31)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요일을 알아가는 것은 본 연구자가 관찰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관찰이 진행되는 동안에 본 연구자는 맑거나, 약간 흐리거나, 비가 오는 등 반복되는 날씨를 보면서 유아들의 생각과 표현도 몇 가지 날씨 속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아들은 무지개만 유아들과 교사 앞에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등원길과 교실 안에서 창을 통해 바라보는 바깥 날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유희실 활동시간, 종이접기 영역에 민진, 성관, 도연, 승현이 앉아서 색 종이를 접고 있다. 성관이가 저고리를 만들어 뒤에 만든 날짜를 쓰려고 한다.

성 관 : (민진에게) 오늘 몇 일이야?

민 진 : 오늘? 야!~ 우리 아까 노래 불렀잖아. 음...

도 연 : 오늘은 25일이지

민 진 : 25일? 아~~우리 불렀지?

도연, 민진 : ♪오늘은 몇 월 몇 일 일까 오늘은 10월 25일♪

도연이와 민진이는 대답이 노래로 이어진다.

연구자 : 너희들은 어떻게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그렇게 잘 해?
 민진 : 그거 쉬워요. 유치원 올 때 보면 알아요.
 성관 : 난 창문을 보는데... 그런데 빨리 손을 들어야 해요. 다른
 아이들이 많이 들어서요.
 도연 : 선생님, 나는 오늘 발표했지요.
 민지 : 나도 했어.
 승헌 : 난 안했어.
 연구자 : 그렇구나~. 친구들한테 이야기 해 주는 것 좋아해?
 민진, 성관, 도연, 승헌 : 네~~ 엄청 좋아해요.
 연구자 : 왜?
 성관 : 그냥요.
 민진 : 내가 얘기 할 수 있어서요. 난 내가 하면 기분이 좋아.
 도연 : 목소리를 크게 하면 친구들이 잘 들어줘요.

(관찰 2007. 10. 25)

유아들에게 날씨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은 단순한 발표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날씨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무지개반 유아들과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유아들은 즐기고 있었고 자신감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유아들에게 다음에도 이야기를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였다. 눈이 내린 날의 표현은 더 구체적이었다.

대집단 음악활동시간이다.

교사 :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 ♪
 민진 :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얘요.
 민우 : 땅에 눈이 많이 내려 미끄럽고 발자국이 생겨요.
 성관 : 나무들도 흰색이에요.

- 민성 : 온 세상이 하해요.
 명진 : 눈이 와서 손이 시려워요
 나영 : 눈을 맞으면 엄마가 감기 걸린대요.
 연우 : 눈이 와서 신나요.
 승현 : 선생님 밖에 나가서 눈싸움 하고 싶어요
 예진 :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 같아요.
 유란 : 크리스마스카드에 나오는 날씨 같아요.
 영현 : ‘손이 시려워’ 노래가 생각나요.

(관찰 2007. 12. 12)

특별히 눈이 내린 날에는 아이들 모두가 신이 나서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유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나영이는 눈을 맞으면 감기가 걸린다는 생활 속의 엄마 말씀을 기억했고 민진이는 온 세상이 하얗다는 눈에 대한 설레임도 보였다. 유란이가 크리스마스카드에 나오는 날씨 같다며 카드 속 그림을 통한 연상이 흥미로웠다.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차갑기 때문에 ‘손이 시려워’ 노래가 생각난다는 영현이의 모습이 신이 나 보인다. 눈이 내린 이 날, 승현이의 바램대로 무지개반 유아들은 바깥놀이 활동으로 평평 내리는 눈을 맞으며 즐겁게 눈싸움을 했고 영현이의 생각대로 ‘손이 시려워’ 노래도 신나게 불렀다.

교사는 노래를 통해 월, 일, 요일에 대해 유아들이 스스로 기억해 가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 사 : 매일의 날짜를 노래 부르기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날짜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고 요일에 대해서도 구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노래로 접근하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즐거워 하구요. 매일매일 부르니까 지겨울 것

도 같은데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익숙해서인지 더 자신 있게 하는 거 같아요. 스스로들 낱씨를 구분해서 잘 해요. 노래 부르기로 학습하는 방법이 아이들도 교사도 서로가 좋다고 생각해요. 낱씨표현은 서로하려고 해요. 늘 같은 대답인거 같지만, 누군가가 표현을 예쁘게 하는 날은 아이들이 그 표현을 꼭 기억해서 다음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자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약간의 경쟁심? 그런 감정을 가지기 발표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발표도, 표현도 늘어나는 거 같아요.

(교사면담 2007. 10. 18)

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노래 부르기는 낱씨의 학습과 언어 표현과 어우러진 통합적으로 음악교육으로 활동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낱씨에 대한 학습이 언어로 전달하는 것보다 노래를 통해 숙지하는 방법이 교사와 유아에게 더욱 쉽다고 엄 교사는 경험을 통해 이야기 하였다. 노래를 부를 때 그 날의 낱씨를 유아들이 언어로 표현하면서 노래 부르기와 더불어 언어로 표현하는 확장된 음악활동으로 나타났다. 매일 같은 노래를 같은 시간에 부르는 활동이 자칫 반복이라는 지루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만 4세 유아들에게는 오히려 익숙하여서 어렵지 않고 자신 있게 동참하는 음악활동이 되고 있었다. 유아들이 직접 관찰하고 느낀 대로 낱씨에 대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유아들에게 적당한 긍정적 경쟁심을 유발시키기도 하여 더 나은 표현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 교사는 설명하였다. 낱씨를 노래로 부르는 활동은 노래와 더불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낱씨에 대한 언어적 표현으로 어우러져 통합적 음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높이고 있는 것을 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생활주제 전달에 용이하고 무난한 음악활동으로서의 노래부르기

유아의 음악교육을 위한 활동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노래 부르기는 자료나 악기 없이 수업을 하기에 가장 무난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쉬운 음악활동이라고 교사는 생각하고 있었다. 엄 교사도 노래 부르기를 음률 활동 중 가장 많이 한다고 다음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교 사 : 음악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회 정도? 많지는 않아요. 항상 수업 방식은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자료나 악기들이 필요하지 않고 음악활동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하기에 노래 부르기가 가장 무난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로 노래 부르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사면담 2007. 10. 1)

무지개반에서 음률활동으로 계획된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로 소요시간으로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교사 입장에서 가장 전달하기 쉬운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를 택하고 있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음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와 그 외 다양한 활동 자료들이 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 활동을 하기에 가장 무난하기 때문이었다. 엄 교사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에 대해서 교사로서의 활동 제시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 사 : 노래 부르기를 하면 율동도 하고 여러 율동과 같은 신체 표현을 더불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이 음악활동 전부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사실 아이들에게 새로운 활동으로 음악을 전달하기에는 제가 하는 수업은 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주어진 시간 속에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은 그냥 노래 부르기로 되는 거 같아요. 악기 수업은 악기가 구비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반에는 악기로 수업이 가능할 만큼 악기 보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냥 저와 아이들에게 쉬운 노래 부르기를 선택 하는 거 같아요.

(교사면담 2007. 10. 1)

엄 교사는 유아들에게 제시하는 활동이 다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으로 교사의 음악적 지도 능력의 한계와 활용 악기, 자료의 부족으로 노래 부르기가 선택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한 음악 활동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편중된 음악활동으로 전달되어진 것을 염려 하고 있었다. 또한 무지개반에 갖추어지지 못한 음악환경도 편중된 음악활동 제시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면담 속에 비추었다.

무지개반을 관찰하면서 노래 부르기의 곡명은 항상 그 주의 생활주제의 요약임을 알 수 있었다. 생활 주제가 ‘가을’인 경우는 노래 선정을 가을에 맞추어 선정하고 공룡이 주제가 되면 ‘공룡’에 관한 노래를 선정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주제에 맞는 노랫말을 고려하여 곡을 선정하여 가사에 함축된 생활주제의 내용을 노래로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 사 : 아무래도 곡명은 생활주제를 따라가게 되요. 활동을 하면서 생활 주제에 맞는 노래를 부르면 주제에 관한 내용이 가사에 명료하게 함축되어 있거든요. 여러번 설명하는 것보다 노래로 주제 전달하는 게 분명한 거 같아요.

(교사 면담 2007. 10. 25)

생활주제의 내용이나 개념이 포함된 노랫말에 근거를 두고 곡을 선정하는 것은 교육부(2008)의 생활주제 중심의 통합교육 강조와 연관 있음을 엄 교

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무지개반에서 선곡되어 불리지는 노래들은 노랫말이 주제 활동과의 우선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었다. 생활주제와 밀접한 가사의 노래를 부를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교 사 : 생활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가끔은 음역이나 빠르기 같은 문제에서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고쳐서 부르기도 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을 선정하려고 노력해요

(교사면담 2007. 10. 25)

생활주제와 관련해서 음악활동 곡을 선정하다보면 간혹 만 4세 유아들이 노래 부르기를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가는 음역이나 빠르기와 같은 음악적인 요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엄 교사는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는 가사에 집중하여 유아의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교사의 선곡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생활주제 통합이라는 어쩔 수 없는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으로 보였다.

2) 악기 연주

(1) 소리를 탐색하는 악기 연주

다양한 소리는 유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소리를 내는 물체의 모양도 유아들에게는 탐색의 큰 부분이 된다. 연구자가 처음 사랑유치원을 방문하고 관찰을 시작했을 때에는 무지개반 음악영역의 악기 보유상태는 열악하였다. 음악영역의 악기 종류는 탬버린, 케스터네츠, 유아들이 은행나무 열매

의 알로 만든 악기와, 유아들이 폐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부수어져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아 보이는 몇 개의 악기가 전부였다. 유아교육기관의 음악영역라고 하기에는 공간도, 공간을 채우는 음악교재도 부족해 보였다. 본 연구의 관찰이 시작되고 셋째 주가 되던 날 무지개반 음악영역에 다양한 악기가 구비 되었다. 아침 등원 후 자유선택활동시간, 음악영역에 구비된 다양한 악기들을 본 유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악기에 접근해갔다.

민 우 : (음악영역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악기를 계속해서 골고루 만져보고 두들겨본다. 옆에 있는 유란이에게)

실로폰으로 '무엇이 무엇이' 칠 수 있어?

유 란 : (아무렇게나 서투르게 실로폰을 친다.)

민 우 : 세계 치면 안돼~ 이렇게 하는거야

유 란 : (묵묵히 민우가 치는 건반 자리를 익히며 쳐다보다가)

나도 해 보자.

(익힌 도, 미, 솔의 자리를 두드리며 신기해한다.)

영 재 : (에그쉐이크를 들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윤 수 : 어! 그거 달걀같이 생겼네~

나 영 : 나 옛날에 문화센터에 가서 해봤어. 이거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에그쉐이커를 흔든다.)

영 재 : 그냥 흔들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웃기다.

나 영 :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음악소리에 맞춰서. 나는 옛날에 해 봤어. 이것도 해봤어.(카바사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소리나는 부분을 비비며 소리 낸다.)

윤 수 : 아프리카 악기같다. 히히히

나 영 : 나 아프리카 아니거든?

영 재 : 아프리카? 히히히

(관찰 2007. 10. 18)

새로운 악기를 탐색하게 될 때 유아들은 악기의 모양과 생김새에 관심을 보이며 조심스레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또 주위 유아들이 만지고 연주하는 과정을 탐색하며 모방하는 것으로 악기활용에 접근해갔다.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던 악기의 모양과 종류에 대해 적극적이기 보다는 쑥스러운 듯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탐색하는 모습이였다. 연주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며 연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거에 연주해 본 악기를 기억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악기의 이름이나 주법은 잘 모르지만 영상매체나 책이나 또 다른 경험 속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연주하는 모습에서 본 듯한 기억을 끄집어내어 회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악기 연주법에 대하여 탐색하는 모습이다.

등원 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음악영역에서 하나뿐인 실로폰 채를 가지고 명진이와 상욱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상 욱 : 내가 먼저 잡았잖아. (채를 가지고)

명 진 : 나도 이거 먼저 잡았잖아 (실로폰 악기 본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거니까 빨리 줘

상 욱 : 왜 니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할꺼야.

명 진 : 너는 다른 것들 많이 했잖아. 진짜 너만 할래? 이거(채) 없으면 넌 그거(실로폰) 할 수 없어. 빨리 줘.

상 욱 : (옆에서 준형이가 핑거심벌즈를 손가락에 끼우고 박수 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실로폰 채를 명진이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바로 준형이에게)

그거 그렇게 하면 소리 안 나.

준 형 :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

상 욱 : (심벌즈를 가리키며) 이거는 피부에 닿으면 소리가 작게 나.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 (손가락을 끼우게 되어있는 끈을 피부에 닿지 않게 손으로 잡고 부딪히며 소리낸다.)

이걸로 (우드블록 채) 이거(귀로쉐이커) 치며 소리가 달
라.

(짜이 맞지 않는 악기 끼리 두들기며 소리 내어 본다.)

준 형 : 상욱아 이거 봐봐(탬버린을 눕혀서 북처럼 두들긴다)
재밌지?

상 욱 : 어! 웃기다. 비켜봐 나도 한 번 해 보자.

(관찰 2007. 10. 19)

상욱이와 명진이의 대화를 관찰을 통해 살펴보면 두 명의 유아는 악기의
짜이를 알고 있고 또 악기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다. 또 나름대로 서로의 짜이
아닌 것끼리 활용해서 두들겨보고 탐색을 하는 방법도 유아들의 모습을 통
해 관찰되었다. 악기마다 독특한 사용법이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각
각 다른 악기 소리의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소리탐색은 직접 악기를 만지고 소리를 들어보고 연주하면서 탐색되는 것
만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탐색하는 모습이 가능하였다. 다음은 대집단
음악활동시간에 교사와 유아들의 악기소리를 언어로 탐색해 보는 모습이다.

교 사 : 악기 소리를 우리 목소리로 흉내 내어 볼까요?
기로는 어떤 소리가 날까?

도 연 : 칙칙칙이요~

교 사 : (교사가 기로를 가지고 소리를 들려준다.)
음~ 정말 칙칙 소리가 나네~

교 사 : 그럼 우드블록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인 해 : (입술을 모아 혀로 부딪히며) 푹 푹 푹이요

교 사 : (교사가 우드블록을 가지고 소리를 들려준다.)
우와~ 진짜 우드블록 소리 같은걸?

또 입으로 흉내 낼 수 있는 악기는 무엇이 있을까?

승 필 : 방울이요~ 딸랑딸랑

수 연 : 마라카스는 싹 싹 싹 소리가 나오

성 미 : 캐스터네츠를 짹 짹 이요

(관찰 2007. 10. 25)

대집단 음악활동시간 교사가 악기의 소리를 언어로 표현을 유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유아들은 각자가 들어본 악기소리를 목소리를 통해 악기소리에 근접한 소리로 흉내 내고 있었다. 교사의 활동에 유아들은 각자의 소리로 표현했다.

교 사 : 악기를 보충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나 점심 식사 후에 음악 영역에 많이 가요. 노래 부르기를 할 때에도 저도 악기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도 음악 영역의 환경이 바뀌니까 솔직히 변화가 많이 돼요. 악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폼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 같았는데 다양하게 있다 보니 아이들에게 합주처럼 다함께 즐기는 활동이 되고 탐색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음악을 가르치면서 음악적인 개념과 자극을 아이들에게 너무 못 해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악기를 만지다가 “선생님~ 이 소리 들어봐요. 신기하죠?” 하는 반응을 보이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예전엔 음악 영역에 정말 아이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많이 찾는 영역이 되었어요.

(교사 면담 2009. 11. 29)

음악영역의 악기구비에 따른 변화는 유아들에게 악기를 탐색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교사에게는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을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엄 교사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무지개반의 음악영역의 환경은 유아들에게 보이지도, 관심도 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단지 악기를 보충하는 음악영역의 변화만으로도 유아들의 음악적 관심과 호기심, 소리의 자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교사는 이야기 하였다. 음악환경의 필요성이 유아에게만이 아니라 교사의 음악활동 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들에게 그동안 제시하지 못했던 음악환경과 다양한 지도법들이 배제된 음악활동들에 대하여 교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는 달라진 음악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교 사 : 저희 반에서 연구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음악 영역 환경구성이었어요. 악기를 몇 가지라도 더 놓아주어야 하겠다고 느낀 것이 저의 첫 생각이었구요. 악기가 구비 되고 나니까 악기소리가 각각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탐색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커지고 그런 점을 보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미처 신경 써 주지 못한 것에 미안했어요. 환경구성에 따라서 아이들이 탐색하고 관심 가지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데... 알면서도 놓치게 되는 부분인거 같아요.

(교사면담 2007. 12. 5)

엄 교사는 교실의 음악영역의 환경이 미비함을 알고 있었지만 진적에 변화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교사로서 유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음악환경이 유아의 음악활동과 음악성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음악환경에 대하여 사실상 소홀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교사는 면담을 통해 나타내었다.

(2) 유아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악기 연주

무지개반 음악영역 악기장에 여러 가지 악기가 보충이 되면서 음악활동의 수업진행 방식이 노래부르기와 율동에서 악기 연주까지 포함되어 확장되었다. 평소 무지개반 교사와 유아들이 알아왔던 모습과는 다른 유아들의 모습이 대집단 음악활동에서 악기를 이용한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교 사 : 어제 배운 ‘낙엽’ 노래를 악기 연주를 해 볼게요. 악기 연주를 해 보고 싶은 친구?

(많은 유아들이 손을 든다.)

교 사 : 그러면 헤민이, 승현이, 명진이, 상욱이, 도연이, 상원이 나와서 악기장에 가서 좋아하는 악기 가지고 오세요

(헤민-마라카스, 승현-캐스터네츠, 명진-핑거심벌즈, 상욱-귀로, 도연-트라이앵글, 상원-클래터를 가지고 온 후 선생님 반주에 맞추어 형식 없이 연주해본다)

교 사 : 너무 잘 했어요. 자~ 이번엔 다른 친구들이 해 볼까요?

(자리에 들어온 헤민이가 또 손든다.)

헤 민 : 또 하고 싶다.. 또 하고 싶어요. 저요~

교 사 : 헤민이 악기 연주가 즐거웠어요? 헤민이랑 친구들이 즐거워해서 선생님도 너무 즐거워요. 하지만 아직 못해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관찰 2007. 10. 24)

(헤민이가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조금 전 음악 활동 시간에 만져 본 마라카스를 흔들고 있다.)

연구자 : 헤민아 마라카스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서 신기하구나?

헤 민 : (연구자를 쳐다보며) 네~!

(다시 클래터, 핑거심벌즈, 귀로, 트라이앵글, 실로폰등 여러 리듬악기를 돌아가며 한동안 혼자 연주해 본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나영이에게)

이거(마라카스) 해 볼래? 나는 이거(귀로) 해 볼게. 같이 해 보자.

나 영 : 나는 이거(우드블럭) 할래. (마라카스를 내려놓고 우드블럭을 집는다.)

헤 민 : 그래~. 나비야 나비야 해 볼까?

♪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헤민이가 나영이를 리더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 연주를 한다.)

(참여관찰 2007. 10. 24)

헤민이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무지개반에서 다른 유아들에 비해 의욕이 없는 유아다. 또래친구와 교사에게 반응이 없고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았으며 얼굴 표정이 다양하지 않고 밝지 않은 유아였다. 교사와 음악 활동을 할 때에도 헤민이는 손유희를 기운 없이 겨우겨우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교사는 헤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일부러 배려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헤민이가 악기 연주를 하고 싶다고 대집단활동시간에 스스로 손을 들어 이야기 하거나 음악영역에서도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네고 활동을 리더하는 모습은 연구자와 교사에게 헤민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집단 음악활동 시간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교사가 적당한 선에서 헤민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음 음악활동을 기대 할 수 있게 했지만 헤민이의

대집단 활동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교 사 : 헤민이가 좀처럼 표현을 하지 않는 아이인데 오늘 스스로 더 연주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놀랐어요. 기분이 참 좋더라구요. 항상 마음을 닫고 있는 거 같아 좀 염려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헤민이에게 ‘또 한 번 할 수 있게 해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헤민이에게만 허락하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상황이 엉망이 될 것 같아..(웃음). 어쨌든 오늘 헤민이의 모습에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달라진 아이의 모습만으로도 이 일에 보람을 느껴요.

(교사 면담 2007. 10. 24)

교사가 생각하던 소극적인 헤민이가 악기를 통해 나타나는 적극적인 모습에 교사는 기분이 좋다고 표현하였다. 늘 소극적이고 반응이 없던 헤민이가 악기를 통해 교사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은 분명 교사에게 보람을 주고 있었다.

사랑유치원에서는 해마다 12월 25일 무렵 성탄 축하 음악회를 하는 것이 유치원의 큰 연례행사로 이어져왔다. 음악회에는 각 반 유아들이 준비한 악기 연주나 합창 또는 율동을 준비해서 부모님들을 초대하여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회를 준비할 때 무지개반 교사의 권유로 본 연구자는 음악회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무지개반 유아들은 교실에 있는 악기를 활용한 합주와 율동을 준비하였다. 연주 준비를 하면서 교사가 그동안 몰랐던 유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 사 : 요즘 음악회 준비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헤민이랑 명진이는 정말 눈이 띄게 달라

졌어요. 헤민이는 음악회 준비를 하면서 너무 밝아졌어요. 헤민이가 어떤 활동시간을 기다리는 걸 보기 힘든데 음악회 연습 시간을 기다려요. 마칠 때 아쉬워하는 모습도 정말 신기해요. 악기 정리도 시키지 않아도 잘 하구요. 마치 악기활동 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참 자유로워 보여요.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에게서 반응이 오고 아이가 변화 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교사면담. 2007. 12. 20)

그동안 교사의 생각 속에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고 고정화된 헤민이의 모습이 악기활동을 통해 밝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헤민이와 교사가 악기를 통해 소통되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엄 교사는 설레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악기연주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나는 유아가 있었는데 명진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마스 연주를 앞두고 엄 교사는 각각의 악기들을 그룹을 만들어 친구들과 연습을 시켰다. 유아들은 악기별로 흩어져서 각자의 파트를 연습하고 있는데 명진이가 교사에게 다가 온다.

명 진 : 선생님 진욱이가 박자에 맞춰서 안쳐요. 그래서 헛갈려요. 선생님이 같이 해 주세요.

교 사 :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곧 갈게. 선생님이 가실동안 명진이가 잘 하니까 선생님을 대신해서 명진이가 잘 도와주고 있으세요.~ 선생님이 곧 갈게.

명 진 : 네~ (다시 친구들이 모여 연습하는 언어영역으로 간다.)

애들아 선생님이 연습하래. 진욱아 나 따라 해봐~

쿵 짹 짹 할 때 두 번치면 돼. 이렇게

(명진이와 진욱이의 악기는 캐스터네츠이다. 3/4 쿵짹짹에서 약박자 짹짹을 캐스터네츠로 치면서 보여준다. 진욱이는 명진이가 원하는 만

큼 되지 않고, 악기 연주에도 관심이 없는 듯 성의 없이 캐스터네츠를 두드린다.)

이렇게 해봐. 진욱아~

(명진이의 두 손으로 진욱이의 두 손을 맞잡고 함께 연습한다.)

(관찰 2007. 12. 20)

그룹에서 진욱이 때문에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명진이에게 엄 교사는 선생님이 갈 때까지 대신하여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하며 명진이를 돌려보냈다. 그룹으로 돌아간 명진이는 다시 차분히 진욱이에게 가르쳐주었는데 명진이에 대하여 엄 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 사 : 명진이는 책을 읽어도 식물도감 같은 책을 읽고,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수학영역에서만 놀았던 아이예요. 음악회 준비를 하면서 악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머리를 까닥이며 박자를 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박자를 기억하면서 즐기는지, 합주 연습을 시작하면 얼른 자기 위치에 앉아서 악기 달라고 그래요. 눈은 또 저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너무 귀여워요. 악기 연주하면서 보여진 명진이는 그동안 제가 알던 명진이와는 너무 달라요.

(교사면담 2007. 12. 20)

엄 교사는 악기연주를 통해 보여지는 명진이의 모습이 그동안 교사가 알고 있었던 모습과 사뭇 다른 점에 대하여 그동안 보여지는 것만으로 유아를 이해하고 있었던 교사의 시각을 인정했다. 교사는 유아들의 성격이 음악적 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유

아 각자의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특정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3) 신체표현활동

무지개반 음악활동 또 하나의 활동은 신체표현활동이었다. 신체표현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무지개반을 관찰하는 동안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율동은 항상 유아들이 가사에 맞게 율동을 직접 만들어 활동하였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율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과 함께 한 소절씩 가사에 맞는 율동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 공룡 프로젝트 기간 ‘아기 공룡 껍질을 깨고 탁!’ 이라는 곡을 신체표현하고자 대집단 음악활동시간에 무지개반 교사와 유아들은 율동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교 사 : ‘아기 공룡 껍질을 깨고 탁!’ 을 어떻게 해 볼까요?

유아들 : 저요 저요 저요~~

교 사 : 유란이가 해 볼까?

유 란 : (양팔을 동그랗게 머리위로 햇님처럼 올리며) 아기공룡 껍질을 깨고 탁! (이 부분에서 만세를 하고)

교 사 : 아~ 공룡 알처럼 양팔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껍질이 깨어지면서 탁!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요? 와~ 어때요? 또 다른 친구들 생각은요? 민진이가 해 볼까?

민 진 :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 등을 굽혀 머리를 가슴팍에 물고) 아기 공룡 껍질을 깨고 탁!
(이 부분에서 머리를 들며 손을 번쩍 만세를 하며)

교 사 : 공룡 알에 공룡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탁 할

때 껌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럼 유란이와 민진이가 방금 표현했는데 어떤 걸로 할까?

유란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교사가 재연) 하는 것이 좋은 친구?(유아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든다.)

그럼 민진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교사가 재연) 하는 것이 좋은 친구는?(유아들이 여기 저기서 손을 든다.)

유란이에게 손을 든 친구는 5명, 민진이에게 손을 든 친구는 11명~. 그럼 '아기 공룡 껌질을 깨고 탁!'은 민진이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교사 재연) 해요. 다음 '꼬리가 삐죽'은 어떻게 할까?

(참여관찰 2007. 11. 22)

무지개반 교사와 유아들은 20분이 넘는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유아들이 직접 울동을 만들어갔다. 유아들이 제시한 울동이 몇 가지로 다른 의견으로 나뉘는 경우가 되었을 때는 거수를 통해 유아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였다.

연구자가 무지개반에서 신체 창작활동을 처음으로 관찰하게 되었을 때는 울동이 선택되지 않은 유아들이 혹시 우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연구자의 단순한 추측뿐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유아들은 다음 동작으로의 연결에 어떤 감정을 내세울 겨를도 없이 다음 동작을 구상하고 또 손을 들어 발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아들의 가사 내용에 적절한 동작을 보면서 유아들이 평소 사물에 대한 관찰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는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신체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 사 : 울동을 할 때는 제가 울동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반 아이들이 만든 울동이 훨씬 예뻐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멋진 동작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표현도 사실적 이에요. 아이들

의 관찰력과 상상력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동작의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잘 담긴 동작들이 많아요. 사실 교사인 제가 봐도 재미있기도 하구요(웃음). 리듬에 맞추어서 짧은 표현, 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교사면담 2007. 11. 28)

엄 교사는 유아들의 신체표현에서 유아들의 눈높이로 표현된 율동이 더 사실적이라고 하였다. 유아들의 관찰력과 상상력은 교사의 기대 이상이었으며 표현의 방법도 교사가 계획하여 준비한 신체표현활동보다 수업의 내용면으로도 뛰어나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만든 동작이 오히려 교사가 만든 동작보다 구체적이고 간결하여 유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신체표현활동 시간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리듬에 맞추어 동작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있다고 교사가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유아들이 음악의 대조와 음의 변화와 움직임 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무지개반의 신체표현활동을 참여관찰하면서 발견한 또 한 가지는 교사가 다른 활동보다 신체표현활동을 즐겁게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 스스로가 신체표현활동은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운 활동이며 음악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즐기는 활동이라는 인식하에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으로 보였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무지개반에서 실시되는 신체표현활동은 위에 제시된 한 가지 방법에 머물러 있었다.

2. 음률 활동의 어려움

1) 활동자료의 부족

엄 교사는 음악활동의 개선과 방법에 대한 노력으로 무지개반 유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악기와 필요한 악기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음악영역의 악기를 구비함으로서 관찰 과정 중에 상당부분이 활동자료의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연구자가 처음 유치원을 방문하고 관찰을 시작한 2007년 10월 1일에는 무지개반 음악영역의 악기 보유상태는 열악하였다. 음악영역의 악기 상황은 탬버린, 캐스터네츠, 유아들이 은행나무 열매의 껍질로 만든 악기와, 유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부수어져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아 보이는 몇 개의 악기가 전부였다. 음악영역라고 하기에는 공간도, 공간을 채우는 음악교재도 부족해 보였다. 방치되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연구자가 무지개 반을 처음 방문했을 때 교사는 무지개반 교실의 음악 환경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였음을 다음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교 사 : 선생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긴장을 좀 했었어요. 우리 반 음악영역 환경이 이 모양인데... 하는 생각에... 좀 걱정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보이기에 급급했던 거 같아요.

(교사면담 2007. 12. 5)

무지개반에서는 그동안 음악영역이 음악 활동을 돕고 음악적 환경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 교실 안에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아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공간으로 교사에게는 미처 손이 닿지 않은 공간으로 여겨져 왔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무지개반을 관찰하는 첫 2주간 음악영역을 찾는 유아는 하루에 1~2명에 그쳤다.

자유선택활동 시간, 음악영역에 유아들은 없고 언어영역, 수학영역, 사회영역, 과학영역, 미술영역에 유아들이 흩어져서 놀고 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15분가량 지난 후 상욱이가 음악영역으로 온다. 상욱이는 몇 가지 없는 악기를 성의 없이 손으로 쓸어보고는 그냥 가 버린다. 상욱이가 다녀가 후로 음악영역을 찾는 유아는 자유 선택 활동시간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관찰 2007. 10. 10)

위와 같은 상황은 2주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관찰 되었다. 음악영역을 찾는 유아들은 음악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스치는 공간으로 들렀을 뿐이었다. 그리고 음악영역을 일부러 찾아오는 유아도 없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 음악영역을 찾는 유아들이 없다.

민진이가 키보드 옆으로 오더니

민 진 : 저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연구자를 쳐다보며 키보드 건반을 친다.)

어? 소리가 안 나네...

(키보드에서 소리가 나지 않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음악영역에서 사회영역으로 가 버린다. 자유선택 활동을 마치기까지 유아들은 오지 않았다.)

(관찰 2007. 10. 11)

무지개반에 있는 악기 중 가장 눈이 띄고 좋은 악기는 교사용 키보드였다. 하지만 키보드의 용도는 교사의 수업 도구로서의 활용이었다. 음악활동 시간에 교사가 사용할 시간 이외에는 전원을 꺼 놓기 때문에 유아들은 꺼진

키보드에 대해 소리가 나게 해 달라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유아들이 스스로 전원을 켜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음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관찰에서 보여진 유아의 행동으로 비춰보았을 때 유아들의 키보드에 대한 인식은 키보드는 음악영역의 악기로서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 음악영역 근처에 있는 교사의 수업도구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기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자가 무지개반을 관찰을 한 3주차 되던 10월 18일 유치원에서 음악영역의 악기를 보완하였다. 실로폰, 탬버린, 케스터네츠, 핑거심벌즈, 마라카스, 귀로, 에그쉐이크, 방울, 우드블럭, 클래터, 핸드벨, 레인메이커, 카바사 등의 악기가 음악영역에 비치되었다. 악기가 보완되자 엄 교사는 대집단 음악활동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악기가 보완되면서 무지개반의 음악활동은 악기를 연주해 보는 활동이 자연히 많아지게 되었는데 유아들이 다른 음악활동보다 교실에 구비된 악기를 활용한 악기활동을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 사 : 오늘 배운 노래 울동을 만들어 볼까요?

유아들 : 아니요. 악기로 해요

악기요~~

교 사 : 악기? 또? 알았어요. 이제 악기가 많으니까 친구들 모두가 차례로 나와서 연주해 볼게요. 이름 부른 친구들은 나와서 해 봐요.

교사는 유아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각자가 음악영역에 고른 악기로 오늘 배운 노래에 맞추어 자유롭게 연주를 하도록 하였다.

교 사 : 진하가 들고 있는 악기는 기로라는 악기에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 볼래요? 진하야 악기 소리 들려주세요.

교사는 각각의 악기 소리를 유아들을 통해 들려주고 악기의 이름을 소개해 주었다.

(관찰 2007. 10. 25)

위의 관찰에서 유아들이 다른 음악활동보다 악기 활동을 원하고 있음을 대답을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새로운 악기에 대한 관심이었다. 개선된 음악 영역의 변화와 구비된 악기의 활용만으로도 음악활동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교사는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교 사 : 그 동안은 음악활동에서 악기활동은 거의 못했어요. 노래를 하면서 율동을 만들어 보는 정도에 그쳤는데 악기연주를 해 보니 아이들이 즐거워하네요. 사실 저도 새롭고 재미있구요. 무엇보다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악활동 시간도 서로 즐겁구요.

(관찰 2007. 11. 22)

무지개반 교실의 음악영역 환경변화는 유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교사는 그동안 교실의 음악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다루어 온 음악활동에 대하여 무지개반 유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교 사 : 교실의 환경이나, 필요한 교재나 교구들은 교사의 요구하면 유치원에서 제공해 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너무 소홀했던 거 같아요. 이번에 유치원에 있는 다른 반도 함께 악기들을 동일하게 구매했는데 진척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세밀히 신경 써주지 못해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환경이 조금 변했는데도 저와 아이들

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교사면담 2007. 11. 22)

엄 교사는 그동안 음악활동의 어려움으로 활동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지만 교사 스스로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였다. 교실의 음악영역에 다양한 악기의 제공만으로도 교사와 유아에게 음악적인 환경과 음악활동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있음을 교사는 느끼고 있었다. 음악영역의 환경과 음악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의 환경과 활동에 대하여 교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교사는 면담을 통해 나타내었다.

2) 음악 활동에 대한 교사의 선입견으로 인한 제약

엄 교사는 새로운 음악활동을 유아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접어야 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 사 : 요즘 음악활동에 관한 교재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달크로즈나 코다이 같은 그런 활동들이 생각 나더라구요. 그런데 막상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래도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해보고 싶지만 시도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상 저희가 인용할 만한 음악활동들이 많지 않아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요.

(교사 면담 2007. 10. 21)

엄 교사는 최근 무지개반 유아들과의 새로운 음악활동을 위해 음악활동에

관한 교재를 찾던 중 학자들이 내세운 유아 음악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교사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못함을 알지만 유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젠가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을 면담 중에 드러냈다. 엄 교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악활동에 대하여 학자들이 내세운 달크로즈나 코다이와 같은 유아음악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문적으로 잘 제시되어 전문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가 현장에서 응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엄 교사는 유아들에게 음악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제시하고 싶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교 사 : 음악활동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제 능력껏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개념과 좋은 음악활동을 제시해 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구요.

(교사 면담. 2007. 10. 1)

엄 교사는 유치원의 일주일 활동 중에 음악 활동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동안 교사는 유아들에게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적 개념에 대하여 능력껏 가르쳐 주고 싶다고 했다. 교사의 말 속에는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는 교사의 아쉬움도 포함 되어 있었다. 교사는 음악활동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유아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교사가 음악활동에 대하여 어렵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엄 교사는 그동안 교실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교 사 : 보통 대집단 음악활동을 할 때 곡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악기 연주와 율동까지 하다보면 주어진 시간이 끝나버려요.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벅차죠. 그러다보니 음악활동은 항상 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래부르고 율동하고 악기연주하고..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잘 전달하지도 못하는 것 같구요.

(교사 면담 2007. 11. 22)

엄 교사는 유아들에게 음악적인 개념을 전달하고 싶지만 방법이 어렵다고 하였다. 교사에게 새로운 음악활동 지도법이 필요해 보였다. 엄 교사와 면담을 하던 중 그동안 무지개반에서 리듬에 대한 활동을 해 보지 않았으니 교구가 없이 여러 가지의 리듬을 손뼉이나 발 구르기로 해 보자고 연구자가 권유하였다. 간단한 리듬활동을 교사가 대집단 음악활동시간에 실시해 보았다.

대집단 음악활동 시간

교 사 : 선생님 박수 소리를 따라 해 볼까요? 어려울텐데~~? (웃음)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유아들 :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유아들은 교사의 리듬을 다시 받아 박수를 친다.

교 사 : J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짹)

유아들 : J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짹)

교 사 : J J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짹)

유아들 : J J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짹)

교 사 : J J J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짹)

유아들 : J J J J J J J (ㄹ 짹 짹 짹 짹 짹)

(교사는 더 다양하고 좀 더 복잡한 리듬을 시도했지만 유아들은 무난

히 따라했다.)

교 사 : 너무 잘하네~ 우리 무지개반 친구들이 이렇게 잘 할 줄 선생
님이 몰랐네요~

유아들 : 계속해요~
또 해요~

교 사 :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명을 정할테니까 우리가 그 친
구를 따라해 보자. 음... 누가 해 볼까??
민진이가 해 볼래? 앞으로 나와보세요

민 진 : ♪ ♪ ♪ ♪ (ㄱ 짹 짹 짹 짹)

교사, 유아들 : ♪ ♪ ♪ ♪ (ㄱ 짹 짹 짹 짹)

민진 : ♪ ♪ ♪ ♪ (ㄱ 짹 짹 짹 짹)

교사, 유아들 : ♪ ♪ ♪ ♪ (ㄱ 짹 짹 짹 짹)

민진이가 몇 가지 리듬을 더 제시한다.

교 사 : 그럼 이번에는 신나는 타임머신타고서 노래를 부를 텐데 가
사랑 손뼉이랑 같이 치면서 불러보자. 할 수 있죠?

유아들 : 네

(관찰 2009. 11. 29)

너무나 간단하게 신체를 이용한 리듬수업은 교사와 유아들이 새로운 음악
활동이 되었다. 리듬을 주고받고 반복하면서 유아들은 소리와 리듬에 집중
하게 되었고 다양한 리듬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약간 복잡하게 느껴
지는 리듬도 유아들은 기대보다 정확하게 따라하였다. 교사는 신체를 이용
한 리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교 사 : 아이들이 생각보다 리듬을 잘 느끼네요. 깜짝 놀랐어요. 어
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사
실 저한테 익숙한 활동을 대부분 하게 되니까요. 음... 제가
음악활동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요. 마치 음악회처럼 보여 즐겁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요.

(교사 면담 2009. 11. 29)

엄 교사는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음악활동 역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엄 교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큼 아이들도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교사가 음악활동을 진행하기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활동으로 인식되어져 있었다. 교사의 이러한 음악활동에 대한 선입견들이 교사와 유아에게 제약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3) 교사의 음악적 자신감 부족

엄 교사는 사랑 유치원에서 음악에 관심이 많고,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였다. 하지만 엄 교사와 면담 중 음악에 대한 지식과 활용방법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음악활동의 제한적인 방법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교 사 : 정작 음악 활동에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가 막막해요. 그러다보니 늘 이 방법이 맞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멜로디를 익히는 그런 거의 유사한 수업 형태로 가게 되죠.

(교사 면담 2007.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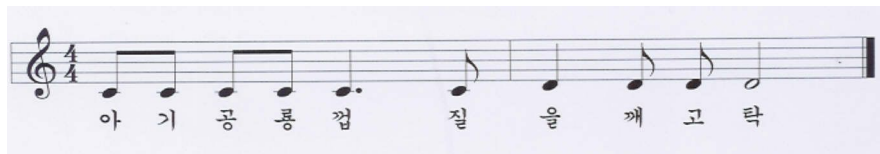
엄 교사는 새로운 음악활동에 대한 시도를 하고 싶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수업을 하게 된다고 고민하였다. 엄교사가 말하는 고민은 음악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저하로 비추어졌다. 교사는 음악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준비한 활동에 대하여 제시 방법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11월 한 달간 무지개 반에서 공룡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공룡에 대해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음악활동도 공룡에 대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기간에 ‘아기 공룡 껍질을 깨고 타악’ 라는 곡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악보 3 과 ‘타악’에서 음정이 옥타브 음역으로 되어 있었다. 교사는 악보대로 유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무지개반 유아들은 어려운 음정을 어렵게 따라 불렀다. 이 부분은 유아들의 노래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교사는 노래를 부르다가 유아들에게 음역이 무리인거 같아 악보 4와 같이 부를 것을 제시하였다.



[악보 3]



[악보 4]

교 사 : 오늘도 탁! 그 부분을 제가 자신없어하니까 아이들도 어려워하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노래 중간에 바꾸어서 아이들이 더 혼동 되었을 거예요. 탁! 부분이 어려웠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에게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선택했거든요. 어려운 부분을 처음부터 고쳐서 가르칠걸 그랬어요.

(교사 면담. 2007 .11 22)

엄 교사는 유아들에게 어려운 음정을 따라하게 하여 무지개반 유아들이 자신 없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엄 교사는 음악활동 중에 나타난 옥타브 음정이 만 4세 유아에게 어려웠고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에 맞추어 음정을 변형 시켜 활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였다. 엄 교사는 노래의 분위기 차분한 곡에 대해서도 음악활동의 어려움은 나타났

교 사 : 어제 수업은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오전에 미리 들려 줘야 했는데 잘 못한 거 같아서요. 곡도 차분하고 아이들의 반응도 쳐지고... 아이들 반응이 없을 때가 힘들어요. 전달이 좀 부족 했나봐요. 좀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웃음). 아이들이 신나게 동참하면 좋은데 조용한 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중을 많이 못하니까요. 차분한 곡을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지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하기 전에 좀 염려가 되기도 해요. 조용한 곡은 항상 수업할 때 어렵죠. 그래서 잘 하지 않구요~

(교사 면담 2007. 10. 25)

엄 교사는 차분한 분위기의 곡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힘들어 했다. 유아들의 반응이 신이 나고 흥겨워야 교사는 음악활동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곡으로 활동을 할 때는 교사가 재미있게 활동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아들의 반응은 엄 교사에게 자신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음악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기도 하였다. 차분한 노래의 경우 유아들의 모습도 차분하고 교실의 분위기도 차분해진다. 이런 분위기가 엄 교사에게 곡 선정의 부담과 활동지도의 부족함으로 인식이 되면서 차분한 분위기의 노래 활동에 대해서는 교사 스스로의 자신감 부족으로 활동을 어

러워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랑유치원 만 4세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의 실제와 음악활동의 의미, 그리고 무지개반 교사가 음악활동을 실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만 4세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신체 표현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무지개반에서 교사가 노래부르기를 통해 유아들을 음악활동에 집중시키고 동참시키고 있었다. 한 반을 이루는 유아들은 각각 다른 기질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활동을 이끌어가기에 무난한 성향의 유아들도 있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하거나 또는 장난이 심해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활동적인 유아들도 있다. 이러한 유아들은 교사가 대집단활동을 이끌어갈 때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아의 경우 교사는 ‘노래’라는 음악활동을 통해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성향이 다른 유아들을 음악활동으로 동참시키고 있었다.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방법은 또래 친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교사는 소극적인 유아에게는 격려의 의미로,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유아에게는 관심의 의미로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사는 노래부르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유아의 기질과 행동을 이해하며 유아들을 음악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였다. 노래 부르기 활동은 교사의 격려와 관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질의 유아들이 음악활동에 동참 하게 하는 방법은 유아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지개반 음악활동을 관찰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통해 학습과 언어 표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래 부르기 활동은 매일의 날씨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변화하는 날씨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노래에 매일의 날씨 변화를 바꾸어 표현하며 부르는 노래는 유아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동참하는 활동이 되었다. 교사는 음악활동을 노래와 언어로 표현하는 통합적 활동으로 유도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매일 같은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반복되어 지루해 보이지만 유아들에게 도리어 익숙함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러한 익숙한 음악활동은 유아들에게 자신 있게 동참하는 활동으로 전달되었다.

노래 부르기 활동은 다른 활동을 이해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주제에 대한 탐색하는 활동으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학습적인 부분에 매여 주제와 제목과 가사를 이해하고 음정을 익혀서 불러보는 활동에 그칠 뿐, 가창에 필요한 숨쉬기,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한 발음,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한 발성, 리듬 등 노래 부르기에 필요한 기술은 간과되고 있었다. 학습적인 전달에만 중심을 둔 노래 부르기는 음악활동에서의 의미가 흐려지게 되므로 교사가 노래 부르기 활동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노래 부르기 지도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교사는 노래 부르기는 다른 활동에 비해 교구, 교재가 필요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무난히 할 수 있는 쉬운 음악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김주현(2000), 박미용(2003), 이은수(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음악활동에는 여러 악기나 교구와 활동 자료들이 필요하지만 노래 부르기의 경우에는 교사가 반주 할 수 있는 건반악기만 있으면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활동자료의 준비가 수월하고 교사가 반주를 할 수 있으므로 노래 부르

기는 다른 음악활동에 비해 어렵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교사의 인식은 다양한 음악활동의 계획과 준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었다. 유아기에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교사가 쉽게 진행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음악활동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유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다양한 유아기 음악경험의 제공을 위해 교사 스스로가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음악활동을 준비하여 실시할 것을 시사한다.

노래 부르기는 유치원 생활주제의 가장 유용한 전달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가사에 담겨진 생활주제의 함축된 내용이 교사로 하여금 음악활동 중 노래 부르기를 주로 선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곡 선정 시 제목과 가사가 주제와 연관된 곡을 선곡하게 되는데 이는 유아교육에서 생활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을 강조(교육과학기술부, 2008)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음악활동을 생활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에만 유의하여 가사 전달에만 의미를 두게 되면 유아들에게 음악적 개념과 관련해서 제한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는 음악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유아의 음악적 발달과 수준을 고려해서 유아의 음악적 정서를 배려하는 통합적 음악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탐색하기 위해서는 교실 음악환경으로 다양한 악기가 구비되거나 교사가 유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 초, 무지개반에서는 음악영역이 교실 환경구성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다. 교실 음악영역의 악기를 유아의 관심이나 주제에 맞추어 교체하여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교사의 배려가 유아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 유아의 음악적인 발달과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강은정, 2009; 이상미, 2007) 음악영역 구성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지개반의 음악영역은 다른 활동 영역에 비하여 교사의 관

심이 많이 가지 않는 영역이었다. 두들겨 보는 것만으로도 소리에 대한 탐색이 되고 음악이 되며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의욕이 창의력으로 나타나는 유아기의 음악적 발달을 위해서 교사는 음악환경에 대하여 보다 민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활동을 하면서 악기연주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 교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리 악기연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유아들의 모습은 교사가 그동안 느껴오던 유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악기 연주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유아의 음악성의 자극과 성장으로 유아가 악기라는 음악적 도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유아의 음악적 이해와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에 대하여 교사가 분석하지 못한다면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이해할 수도, 발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교사는 음악활동을 통해 변화해 가는 유아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하고 유아가 음악활동에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요구 된다.

셋째, 교사가 계획하고 준비한 신체표현활동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유아들이 직접 구상해서 만든 신체표현활동은 유아들에게 관찰력이나 상상력,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으로 무지개반에서 좋은 음악활동이 되고 있었다. 무지개반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표현활동은 유아의 리듬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음악의 길고 짧음, 높고 낮음, 빠르고 느림의 차이에 반응하여 가사에 맞게 변화 있는 신체 움직임을 통한 음악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지개반의 신체표현활동은 노래 가사에 맞추어 동작을 만드는 율동에 편중되어 있고 신체를 이용한 창의적 활동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을 위해서 신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유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음악교육에 대하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무지개반에서는 음악 감상에 대한 활동은 연구기간 동안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김승희(2007)의 연구에서 밝힌 감상시간의 부족과 감상 활동자료의 부족, 교사 지도방법의 부족이라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듣기’라는 음악적 행위는 가장 중요한 음악의 기초가 된다. 음악 듣기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음악의 형식과 장르, 음색에 따른 감상은 유아들이 음악적으로 발산하고 표현하는 음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상활동을 유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가 먼저 음악교과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친근하게 접근함이 요구된다.

2. 음악활동을 실시하면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음악활동은 다른 활동과는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져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사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편중된 음악활동을 하게 된다. 음악활동을 실시하면서 무지개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활동자료와 교구의 부족함이 교사가 음악활동을 실시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현진(2002)의 연구에서 교사의 음악활동에서의 어려움 중 교구, 장비의 부족(39.5%)과 활동자료의 부족(36.8%)으로 음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 교실의 구비된 음악영역 환경의 소홀함은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에 부족함과 음악적 자극의 미흡함으로 연결되어 교사가 다양한 음악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교실 음악환경의 변화는 유아들의 음악적 관심과 기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음악활동 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 활동과 자료를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제시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음악환경은 교실 내에서 독립적 영역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악환경에 따라 음악

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발견하는 유아들에게 교사는 유아의 음악적 눈높이를 맞춘 음악적 환경 제공을 위해 교실의 음악영역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사는 음악활동이 무형이지만 음악활동은 즐겁고 재미있으며 교사와 함께 익힌 노래나 율동, 또는 악기 활동을 잘 표현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선입견은 악기, 노래, 율동 등을 익숙하도록 잘 연습하여 보여 지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괜찮아야 하는 선입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음악활동의 확장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코다이어나 달크로즈와 같은 음악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프로그램의 전문성 때문에 교사가 준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인용에 대한 교사의 고민은 교사가 함께 있는 반 유아들의 음악적 눈높이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시된 프로그램을 인용하여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기보다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고 환경에 맞는 음악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음악이라는 용어 속에 담긴 '예술'의 의미가 교사들에게 언어적으로 부담감을 안겨주며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는 음악을 복잡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음악 자체를 충분히 즐기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유아들에게 음악활동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발전과 유아들을 위한 지도를 위해서도 현장 교사의 음악 재교육은 절실히 요구되며 교사들의 지속적인 음악교육의 점검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위해 교사들은 교사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적인 커뮤니티의 활용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간의 음악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가 절실히 요구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활동을 실시할 때 교사의 음악적 자신감 결여가 음악활동에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박미경과 엄정애(2008)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음악적 지식과 이해 부족이 음악과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자신감 부족의 원인으로 예비교사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유아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음악교육’ 과목이 예비 교사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음악적 지식과 유아의 음악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활용과 유용성 또한 부족하다고 밝힌 윤현진(2002)의 대학 유아 음악교육 과정에 대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설문지 연구 결과와 맥이 같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대학 음악교육 과정을 재고할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지개반 교사는 느린 곡의 진행을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템포에 민감한 유아들이 빠른 곡일수록 노랫소리와 반응이 크고 즐겁게 음악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고, 느린 곡의 경우 유아들의 반응이 적고,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음악활동의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느린 곡의 진행을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교사의 편중된 선곡을 막기 위해 교사 스스로가 먼저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 교사는 유아의 음악적인 자극을 위해 교사 스스로가 자신 있게 음악활동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음악활동에서 절대적인 반주 능력을 위해 끊임없는 훈련 또한 계속 되어야 한다. 교사의 반주 능력은 교사의 음악활동의 자신감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반주능력에 따라 유아 음악활동과 음악적 자극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 음악교육 지도에 필수적인 반주 능력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음악활동의 자신감을 위해 교사가 음악적 지식과 경험과 기술에 스스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0시~11시 30분까지 이루어지는 자유선택활동시간과 대집단 음악활동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추후에는 일과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음악적 관심과 활동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만 4세 유아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연구이다.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의 종류와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 4세 이외의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아의 행동발달과 음악적 발달 상태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에의 교사개입에 따른 유아들의 음악활동 변화와 전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무지개반에서는 음악 감상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음악활동의 경험에 제한점을 가진다. 음악 감상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설문지와 실험연구와 같은 양적 연구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들의 음악적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기술적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은정(2009). 만 4세 하늘반의 음악교육의 양상과 교수방법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희정(2004).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아동들의 음악적 관심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진이(2008). 유아들의 자발적인 음악적 행동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1) - 총론
- 권창길, 배현숙(2002). 효율적인 유아 음악 교수법에 대한 고찰. 영유아교육연구, 5, 85-100.
- 김경혜(2000). 유아의 음악적 능력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음악적 요구수준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순, 조경자(2000).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 김명희(2000). 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환경 조사 연구-E.Gorden의 PMMA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진(2003). Dalcroze의 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청취력 및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연(1996).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 김은심, 안숙희(2008). 영유아를 위한 음악·동작교육. 서울: 파란마음
- 김인실(2001). 유아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김주현(2000). 유치원 음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2004). 유아를 위한 청음교육 방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은(2004). 유아 재능 개발에 관한 음악교육에 관한 실태 연구-대구지역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1996). 유치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혜경(2001). 유아음악교육2000. 서울: 창지사
- 명경아(1999). 단체학습을 통한 유아의 청음지도에 관한 연구-알프레드 예비과정 청음교재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경, 엄정애(2008). '새노래부르기'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유아교사의 음악적 개념과 지도의 어려움. 아동학회지, 29(3), 93-113.
- 박성희(2000). 문학적 접근을 통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흥미 영역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영(2003). 놀이를 통한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놀이위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정혜(2004). 청음교육의 중요성과 단계적 지도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주옥(2004). 유치원 교사의 성격유형과 유아의 기질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연아(2002). 리듬악기를 이용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정남(2007). 유아교육기관의 음악교육활동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재신(1996). 유아음악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윤소연(2003). 학령기전 아동의 유아음악에 대한 교사의 인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현진(2002). 대학의 유아음악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실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숙(1982).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민경(2005).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 파주: 21세기사
- 이상미(2007). 보육시설의 유아교육 환경과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영, 엄정애(2003). 음악활동의 통합적 접근이 유아의 음악적 잠재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4(1). 41-54
- 이은화 외(2006). 유아교육개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은수(2004).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1) 105-128
- 이현주(2006). 유아의 음악듣기 발달을 위한 음악지도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은주(2007). 현직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인옥, 이숙희(2001). 유아음악교육.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정애경(2003). 유아 전통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태도 변화와 리듬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화연(2007). 만4세 파랑새반 유아들의 상상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희숙(2003).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따른 유아의 음악 선호도 및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Fox, D. B. (2000). Music and the baby's brain : Early experiences. Music Educators Journal, 87(2), 23-27.
- Gorden, E. E. (1991). Guiding your child's musical development. Chicago: GIA. Publication

- Greenberg, M. (1991). *Your children need music*. 이기숙, 김영주 역. 유아 음악교육. 서울: 교문사
- MENC(1994). The K-12 National Standards and What They Mean to Music Educators. (<http://www.menc.org/index2.html>)
- Merriam, A. P. (2001). 음악인류학(이기우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서 1964 출판)
- Merriam, B. S. (1994). 질적 사례 연구법 - 교육학에서의 질적사례 연구법 (허미화 역). 서울: 양서원. (원서 1998 출판)
- Remier, B. (1990). Would dicipline-based music education make sense? *Music Educators Journal*, 77(9), 21-28.
- Spradly, J. P. (2006). 참여관찰법 [*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Webster, P. R. (1990). Creativity thinking in music: Creativity as creative thinking. *Music Educators Journal*, 76(9), 21-28
- Young, S. (2004). Young children's spontaneous vocalising; Insights into play and pathway to sin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36(2), 59-73

ABSTRACT

The Ethnographic Study on Music Activities of Mujigae Class with Four-Year-Old Children

JUNG, So-Young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kinds and meaning of music activities of Mujigae (or Rainbow) Class with four-year-old children in a kindergarten, and to make a deep analysis of difficulties experienced by a teacher during music education activities through an ethnographic approach. It is expected that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suggestions regarding music activities perform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The current study pos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 1) What are reality and meaning of music education activities implemented in Mujigae Class with four-year-old children?
- 2) What ar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teacher of Mujigae Class

during music education activities?

In the study, a total of 24 observations were conducted for 12 week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s of twice a week from October 1, 2007 to December 24, 2007. Four formal interviews with the teacher were performed while informal interviews through routine conversation were made as occasion demanded. A field note was written after the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al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The researcher classified and categorized the data by repetitively reading the field note and the transcription of recording.

The following are results gained from the current study.

First of all, kinds of music activities performed in Mujigae Class were classified into singing song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physical expression. The teacher of Mujigae Class made children who were not able to express themselves actively and needed careful consideration participate in activities through singing songs, which is the meaning of singing songs. On the other hand, she let children who couldn't concentrate on activities join the activities by praising them through singing songs. The teacher positively led children through singing songs while understanding various dispositions and behaviors of the children. Therefore, it was found that singing songs was used as a way to convey the teacher's encouragement and interest to the children. And linguistic expression and date learning were implemented with integration while singing songs. The children could fully understand dates that

change everyday through singing songs and expanded to linguistic expression by expressing changing dates in language. The teacher intended to provide a learning opportunity through the integrated activity expressing music activity in songs and language. Even though singing the same song repeatedly everyday looked somewhat boring, the children rather felt familiar. This kind of familiar music activity made the children participate in the activity with confidence.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teacher regarded singing songs as a handy music activity that can be implemented more easily within given time without teaching materials or textbooks than other activities. That is, the teacher thought that other music activities require various musical instruments, teaching materials or activity materials, however, singing songs is an easily accessible activity because the only necessary thing is a keyboard instrument to play. The teacher's perception that singing songs is easier than other music activities because it is easy to prepare activity materials and the teacher can play a keyboard instrument became an obstacle to planning and preparing various music activities. Lastly, singing songs was also used as the most useful method to convey daily life themes of the kindergarten. It was found that teachers chose singing songs among various music activities because of the words pregnant with daily life themes. The teacher selected songs in which the titles and the words are associated with daily life themes, which was found to implement integrated education focusing on the life themes.

On the other hand, the teacher didn't have a great interest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compared to other activity areas. Installation of

musical instruments and musical materials were treated with negligence because of classroom environment. Teacher's sensitivity to music environment is required for music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in which just beating becomes searching sound and music, and desire to look for new things is expressed in creativity. Next, the teacher also discovered new aspects of the children through playing musical instruments. This means that the children expressed their own ideas and opinions through musical instruments, as musical development presented through musical experience during early childhood.

The only physical expression activity conducted in Mujigae Class was having the children create rhythmic movements according to the words. Although conveyance of physical activity planned and prepared by the teacher is important as a physical expression activity, the physical expression activity created by the children directly was an excellent music activity in Mujigae Class in terms of the children's power of observation, imaginative power and their attachment to what they personally made. The physical expression activity conducted in Mujigae Class also influenced the rhythmical sense of the children because the children created body movements changing according to the words, responding to differences of length, height and speed of music.

Secondly, it was found that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teacher of Mujigae Class during music activities were insufficient music activity materials and teaching materials. Insufficient music environment of the classroom was an obstacle preventing the teacher from approaching

various music activities because the music environment is not enough to provide musical experience to the children. Changes in classroom music environment not only influenced the children's interest in and expectation for music, but also influenced the teacher's guidance for music activities.

The teacher had a preconceived idea that there should be invisible results presenting the quality of music although music activities are intangible. Namely, the prejudice is about outward outcomes like musical instruments, songs and rhythmic movements that are played well by a professional player. The teacher first reminded of music programs like Kodaly or Dalcroze for expansion or changes of music activities, however, she thought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adopting the programs. because of specialty of those program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 failed to get closer to her children's musical level due to her worry about application of those programs.

Another difficulty during music activity was lack of the teacher's musical confidence.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the teacher of Mujigae Class had difficulties in working on slow songs because the children sensitive to tempos respond to speedy songs more loudly and actively and pleasant music atmosphere is easily created, while the children respond to slow songs less and calm atmosphere is creat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teacher avoided slow songs for pleasant atmosphere of music activ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teacher to get various experiences in order to personally feel the pleasure of music to hinder herself from selecting songs with preponderance.